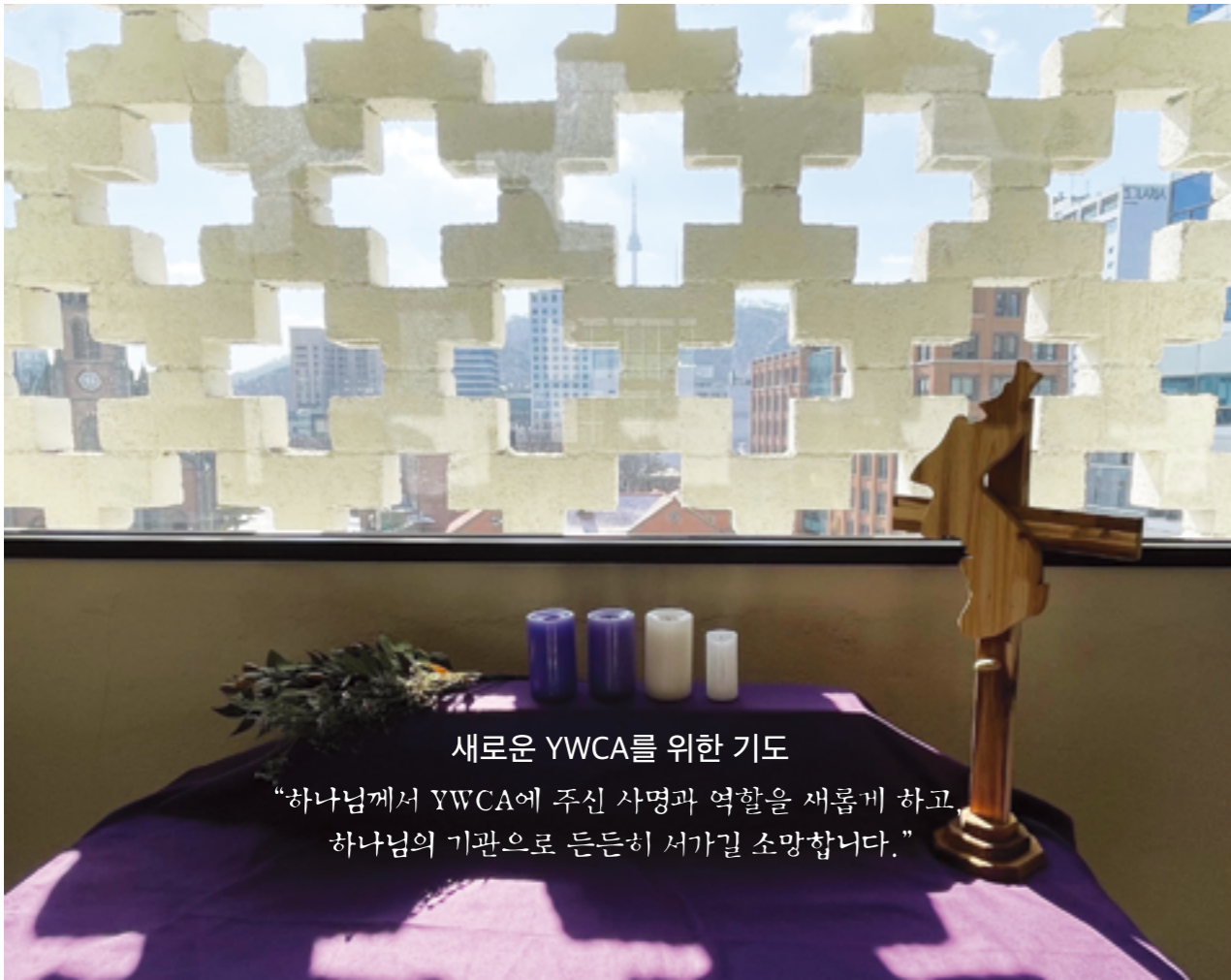


한국 YWCA

2021년 3·4월호
MAR · APR Vol.571



새로운 YWCA를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YWCA에 주신 사명과 역할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관으로 든든히 서가길 소망합니다.”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08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 02.774.9702

강릉	033.651.1385	사천	055.833.2344	인천	032.424.0524
거제	055.682.4950	서귀포	064.762.1400	전주	063.224.5501
고양	031.919.4040	서울	02.3705.6000	제주	064.711.8322
광명	02.895.1966	서천	041.951.6400	제천	043.645.2580
광양	061.762.0012	성남	031.708.2503	진주	055.755.3463
광주	062.609.1300	세종	044.865.2432	진해	055.542.0020
군산	063.462.4491	속초	033.635.3523	창원	055.283.9488
김해	055.332.6000	(사)수원	031.252.5111	천안	041.575.0961
남양주	031.577.7762	(사)순천	061.744.7990	(사)청주	043.265.3700
남원	063.632.7002	안동	054.854.5481	춘천	033.254.4878
논산	041.736.7393	(사)안산	031.483.6536	충주	043.848.3240
(사)대구	053.652.0070	(사)안양	031.455.2700	통영	055.646.2547
(사)대전	042.254.3035	양산	055.367.1144	파주	031.945.5998
동해	033.531.3007	(사)여수	061.654.2161	평택	031.651.7701
마산	055.246.8746	울산	052.247.3520	포항	054.274.4444
(사)목포	061.242.1611	원주	033.742.6090	하남	031.793.7771
부산	051.441.2221	의정부	031.853.6332		
부천	032.668.9700	익산	063.857.8910		

기획 한국YWCA 99주년, Beyond 100년!

한국YWCA 창립 99주년 예비
한국YWCA 99주년 회원선언
한국YWCA 창립 99주년 탈핵기후생명선언

시민사회와 선거

다른 진보, 다른 민주주의

기후위기와 여성

여성의 눈으로 본 3.11후쿠시마 핵재난 10주년

지역과 함께

YWCA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기자회견



YWCA 99주년 회원 선언

한국YWCA는 1922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성들이
'정의, 평화, 창조질서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52개 지역에서 기독교여성시민운동을 펼쳐왔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허락하신 99년의 역사를 이어,
100년을 넘어서까지 희망과 결단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 지역 |

우리는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지역을 꿈꿉니다.

| 청년 |

우리는 청년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그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 회원활동가 |

우리는 기도하고 참여하고 실천하는 시민활동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글로벌 문제를 시민들의 자치와 참여로 해결하는 '지역운동체'가 되고,
'청년'들과 함께 사회변혁에 참여하며,
정의, 평화, 생명의 하나님 나라 실천주체인
'시민 활동가'가 되겠습니다!

2021. 4. 19

YWCA 99주년 회원 선언 참여자 일동

2021. 3·4 한국YWCA



표지이야기

우리의 해양과 바다를 지키자!
우리의 바다는 오염수의 처리장이 아니다!
양산YWC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는 공동행동을 했다.

2021년 5·6월 주요일정

5월 11일	사단법인 인천YWCA 창립총회
5월 13일, 20일	YWCA 신임활동가교육
5월 22일	연합회 실행위원 워크숍
5월 25일	여성주의 연합예배
5월 26일, 28일	YWCA 신입이사교육
5월 26일	제주Y 재구조화 지원교육
5월 27일	사단법인 서울YWCA 창립총회
6월 5일	대학청년 YWCA 임시총회
6월 10일, 11일	YWCA 신임활동가교육

제57권 제1호 통권 571호

2021년 4월 30일 발행 (등록번호 마0009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원영희

편집 구정혜 이주영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02)6080-9858

인쇄 제일프린텍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orea

구독료 연간 2만원 (총 6권)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YWCA

한국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지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 차

04 **이달의 생각** 정의·평화·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이땅에! | 원영희

기획 한국YWCA 99주년, Beyond 100년!

05 한국YWCA 99주년, 100년을 넘어 | 편집실

06 YWCA 99년, Beyond 100년! | 김형국

09 한국YWCA 99주년 회원선언 | YWCA 회원

10 한국YWCA 창립 99주년 탈핵기후생명선언 | YWCA 회원

12 **시민사회와 선거** 다른 진보, 다른 민주주의 | 김은주

14 **청년토크** 비대면 플랫폼, 이제는 익숙하지? | 대학·청년Y

16 **기후위기와 여성** 여성의 눈으로 본 3.11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 이윤숙

18 **탈핵** 빌 게이츠의 '탄소 배출 없는 핵발전론'에 대한 반론 | 조천호

22 **이슈 포커스**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추진의 의미와 과제 | 류홍번

25 **YWCA 변화와 혁신** 창립 100주년 넘어 YWCA의 새로운 전환 | 박동순

27 **이달의 현장①** 미안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YWCA캠페인

28 **이달의 현장②**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탈핵 캠페인

30 **이달의 현장③** 기후위기기독교 비상행동 출범식

32 **이달의 현장④** 지구의날 기념식

34 **이달의 현장⑤** 세계여성の日 YWCA캠페인

35 **이달의 현장⑥** 한반도 종전평화 집중행동

36 **지역과 함께** YWCA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기자회견

38 **제65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참가기** | 이한빛

42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막장드라마 | 오수경

44 **성명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환영한다

45 **연합회 소식**

47 **연합회 모금 현황**

48 **회원YWCA 소식**

정의·평화·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이땅에!

원영희

(사)한국YWCA연합회 회장



한국YWCA 99주년을 맞느라 불어온 폭풍이 지나가는 길목에, 하나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이 폭풍 속에서도 어느 새 봄은 오고, 들녘에 다시 피어오른 노란 민들레를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명을 기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변함없으신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리스도의 손을 꼭 잡고 지금까지 한 번도 디터본 적 없는 미래의 시간과 공간을 바라보며 아침저녁 서늘한 이 바람을 여전히 '생명을 부르는 성령의 바람'이라 굳게 믿으며 서 있습니다.

백 년 전 일제강점기의 폭풍 속을 살던 가장 용감한 여성 몇 분이 모여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를 준비하여 1922년 창립하고, 세계YWCA의 승인을 받아 정식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의 순간에도 우리 YWCA의 '하나님나라 이 땅에 이루는'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창립한 해로부터 1939년까지 함께한 첫 목적문의 사명을 보면,

- 가) 청년의 영·지·체 및 사고적 행복을 발달케 함.
- 나) 청년여자로 야소기독을 신앙케 하여 생활의 원만과 인격의 개발을 기도하며 천국을 건설함에 유력한 기관이 되게 함.

우리 존재의 목적은 '청년'들이 '천국을 건설함' 즉, 백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청년'들이 '하나님나라를 이 땅에 건설'함에 있습니다. <YWCA를 위한 95개 논제>가 강조하듯이 우리의 목적은 YWCA 왕국 건설이 아닙니다. YWCA는 하나님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일 뿐입니다. 각 회원의 관점으로 읽어 보면, 우리는 개개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YWCA에 모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 세움 받은 지체들입니다. 정의, 평화, 생명 살리기를 목적으로 지난 99년간 실행해 온 모든 사업과 사역은 언제나 우리의 목적을 행동으로 옮긴 미래요, 현재였고, 때때로 암담한 터널을 지날 때도 있었지만, 곳곳이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아갈 때마다 기적처럼 맺어주시는 놀라운 결실에 감사가 넘친 세월이었습니다.

이제 한국YWCA는 창립 백년 이후의 운동성 강화를 위해, 새로운 구조로 변혁의 도상에 있습니다. 2019년 회원Y부속시설 정비와 시설운영의 전문성, 투명성, 공공성을 위한 부속시설신운영정책을 준비하며 이미 시작된 변혁입니다. 각 회원Y를 맞춤형 구조 변혁으로 이끌고, 법인인사단 구조로 정비하기 위한 법인 심사, 규정 개정과 새로운 규정 입안 등 쉽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연합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스터리스로 노후된 건물 전체를 새로 단장하고, 청년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은 디자인 인테리어를 해 4층 사무실을 꾸며 재입주했습니다. 새 건물로 들어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솟아납니다. 4층 사무실로 들어설 때마다 감탄하며 청년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7층 옥상에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합니다. 새 벽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수도 없이 이 건물로 밀려들어 오기를!

한국YWCA 99주년을 맞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정의·평화·생명의 하나님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YWCA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현장에서 힘을 다하는 전국 52개 회원 YWCA 9만 회원 여러분들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한국YWCA 99년, 100년을 넘어



한국YWCA가 창립 100주년을 1년 남겨 두고 4월 19일(월) 창립 99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창립 99주년 기념 행사는 1부 순서로 '한국YWCA 99주년 기념 예배'로 99년의 역사를 지켜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렸다. 코로나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였지만 올해 연합회와 함께 99주년을 맞는 광주YWCA와 서울YWCA의 특별 찬양이 유튜브 상에서 예배공간을 가득 채웠다. 특별히 99주년을 넘어 100주년 그 이상을 달려가기 위한 부르심을 선명히 하고 그것을 계승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다짐하게 하는 김형국 목사(나들목교회네트워크지원센터)의 말씀선포 시간이 있었다.

이어진 2부 한국YWCA 99주년의 다짐에서는 '한국YWCA 99주년 회원선언'과 '한국YWCA 99주년 탈핵기후생명선언'의 순서가 이어졌다. 회원선언에서는 지역, 청년, 회원들이 정의·평화·생명의 하나님 나라 실천 주체인 '시민활동가'가 되기를 선언했다. 또한 탈핵기후생명선언에서는 2021 YWCA 탈핵기후생명선언을 통해 탈핵에너지 전환과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이 시대 절체절명의 과제 앞에 실천과 행동으로 탈핵기후생명사회를 이루어 나가기로 결단했다.

YWCA 99년, Beyond 100년!

| 김형국 목사

나들목교회네트워크지원센터 대표

이 글은 한국YWCA 창립 99주년 예배의 말씀 선포를 요약한 것입니다.

오늘은 YWCA의 99주년을 맞이하여, “BEYOND 100년, 어떻게 맞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세대마다 각자 담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어머니 세대는 전쟁을 겪으셨고, 부모님 두 분 다 구사일생을 경험하셨고 두 분은 전쟁 후에는 산업화시대를 지나오셨습니다. 저의 경우는 1960년생인데, 보통 민주화 세대라고 불립니다. 한국 역사 속에서 각 세대는 그렇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YWCA는 어떨까요? YWCA는 일제 치하에서 젊은 여성 그리스도인들을 깨우고 연합하기 위한 운동으로 1922년에 시작된, 한국 근대사와 교회사, 그리고 여성운동사에 너무나 소중한 단체입니다. 99주년을 맞음에 축하드리고, 이제 곧 100세가 된다는 사실이 감개무량합니다만, 또 한편으로 그렇기에 편안한 덕담보다는 조금은 심각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99주년 기념예배 설교 요청을 마주하며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이미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에서 사사들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기간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고난받다가 모세의 인도를 받아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그 후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서서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 후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시기를 사사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그렇게 잘 정복했음에도, 막상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국가가, 즉 신정국가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는 “1-2-3세대”

사사기 2장 6-10절

6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7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8 여호와와 종논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성 세에 죽으매 9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아산 북쪽 담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10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역사는 크게 3세대로 나뉘볼 수 있습니다. 1세대는 모세 세대로, 키워드는 ‘탈출과 구원’입니다. 이집트의 문화와 세계관과 가치관으로부터 탈출한 세대입니다. 탈출 후에는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이 1세대는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혹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세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강하게 경험합니다. 그만큼 많이 고생도 합니다.

2세대는 여호수아 시대로, 오늘 본문의 6-8절로 축약해볼 수 있습니다. 이 세대의 키워드는 ‘정복과 안착’입니다. 1세대가 탈출과 구원을 통해 이룬 열매로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때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세워 자기다운 삶과 사역을 이어나가는 것이죠. 열매도 많이 맺고 영향력도 상당히 많이 발휘할 수 있는 때입니다.

3세대는 2세대의 안정을 계승하며 필요에 따라 새롭게 혁신하는 때입니다. ‘계승과 혁신’이 그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 오늘 본문의 10절이 말하듯이 이 3세대를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표현합니다. 매우 불안한 구절이죠. 사사기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왜 이렇게 됐는지 성경에서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진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3세대에게 1세대와 2세대가 겪은 사건 자체는 이야기로 남아있었는지 모르지만, 정작 그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은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이 ‘세대론’은 현대의 조직과 개인의 인생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3세대에서 실패를 많이 경험합니다. 1세대는 탈출 뿐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개척해 나가야 하기에 온 힘을 기울이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의지해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자리가 잡히면, 2세대는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이뤄나갑니다. 열매도 거두며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후 3세대로 들어간 많은 조직이 생명력을 잃거나 계승에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YWCA는 현재 3세대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세대는 1-2세대의 투자와 헌신의 열매를 마음껏 누립니다. 그리고 혁신에 필요한 자원과 사람, 그리고 과거의 경험 등 여러 자원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이점입니다. YWCA도 훌륭한 인적 자원과 충분한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면에 이 3세대는, 그들이 받은 축복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또한 이때까지 일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어렵듯이 알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이 없어도 그들이 가진 자원으로도 조직은 잘 돌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을 절실하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3세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만 의지하던 선대들과 다르게, 이 3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자신이 짓지 않은 집에 살며 자신이 심지 않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특별히 더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여기게 됩

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믿었고 실제로 의지하지는 않았고, 그래서 다른 신을 겸하여 믿었습니다.

3세대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보다 합친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내게 되면, 조직의 부르심이 불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대신 그 조직 자체와 재산, 그리고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부르심은 약화되고 개념으로만 남아있게 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눈치’를 보는 사람들도 사라져갑니다. 그렇게 야성이 사라지고, 결국 혁신을 이뤄내지 못하고 그 조직은 무너지게 됩니다.

사사기 3장 1-2, 4절

1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2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 두신 이방 민족들은 ... 4 남겨 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심을 따라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3세대가 새로운 문제를 당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하나님만 의존하는 것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세대에게 남겨 두신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잘 해결하여 2, 3세대를 계승하고, 자신들의 과제를 혁신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사사기적 상황이 재연되고는 합니다.

Beyond 100년을 꿈꾸는 YWCA에 드리는 제안

YWCA도 3세대로서 3세대의 사명 완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YWCA를 향한 하나님

의 부르심을 선명히 하고 그 부르심을 계승하십시오. 리더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부르심을 계속해서 선명하게 해나가셔야 됩니다.

일반 기업이나 조직에서는 이 부르심과 관련한 구체적인 결과물을 '사명선언서'(Mission Statement)라고 부릅니다. 사명선언서는 세대가 바뀌면서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는 과거의 사명선언서를 두고 기도하며 실제로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계승한다는 것은 이렇듯 자기 시대에 맞는 부르심의 재해석을 의미합니다.

99주년을 맞은 YWCA가 100년째로 잘 넘어가려면, 리더들은 1922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부르심이 어떤 식으로 계승되어 왔는지 잘 살피고, 현재의 YWCA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Association은 톱 리더가 결정한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는 조직체입니다. YWCA의 멤버들이 100주년을 앞두고 어떻게 함께 부르심을 선명히 하고 계승해 나갈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속적 혁신을 위해 인적 쇄신을 단행하셔야 합니다.** 지속적 혁신은 자신의 시대 속에서 그 부르심을 재해석하는 것을 뜻하는데, 지난 세대가 현대에 비해 그 부르심을 재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재해석의 자리에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인적 쇄신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틀이 필요합니다. 이는 물론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이 지금까지의 부르심을 계승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YWCA가 이 인적쇄신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YWCA의 이름 중 C (Christian)와 W (Women) 뿐 아니라 Y (Young) 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또한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리더들이 앞장서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원로들은 지혜를 나눠주며 현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의사결정의 기회를 젊은 세대에 나눠 주고, 그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멘토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지시나 감독이 아니라 멘토링이라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어른'과 '노인'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계속해서 젊은이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그들을 감독합니다. 그러나 '어른'은 그들을 코칭과 멘토링으로 섬기며 지혜를 나눕니다. 사실 원로들의 지혜는 정말 값비싼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했는데, 너네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참고하렴. 같은 시행착오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담아 "나 때는 말이야"라고 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이고, 이 지혜를 취사하는 것은 다음세대의 몫입니다.

원로 여러분, YWCA에 계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실제로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며 일하셨던 때 아십니까? 그때로 돌아가셔서, 현장에서 지혜를 계속 나눠 주십시오. 혹시 아직도 에너지가 많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가꿔진 산지에 머물지 마시고, 갈렙처럼 새로운 산지를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이 일 또한 원로들이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YWCA연합회 여러분. 저는 YWCA가 100년을 넘어 150년, 200년도 넘게 존속하기 바랍니다. 단, 앞서 말한 3세대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사실 YWCA는 안정적인 조직과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기에, 사명을 완수하지 않고도 200년을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조직은 무너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그런 YWCA를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과거의 유산을 기반으로 제 3세대의 새로운 사명을 감당한다면, 창립 때 그랬듯이 한국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조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을 선명히 하고 그것을 계승하기 위해 애쓰십시오. 지속적 혁신을 가능케 하는 인적쇄신을 단행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수고하신 원로들은 지혜를 나누며 현장으로 돌아가십시오.

Beyond 100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YWCA가 되시길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YWCA 99주년 회원 선언

한국YWCA는 1922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성들이 '정의, 평화, 창조질서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52개 지역에서 기독교여성시민운동을 펼쳐왔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허락하신 99년의 역사를 이어, 100년을 넘어서까지 희망과 결단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지역] 우리는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지역을 꿈꿉니다.

우리는 차별과 소외가 없고, 평등하고 안전하며, 깨끗한 환경과 생명이 존중되는 지역을 꿈꿉니다. 우리는 다양한 시민들과 함께 지역의 미래를 상상하고, 지역의 문제를 더불어 해결하며, 변화를 이루기 위해 주체적으로 운동하는 생명력 가득한 역동적인 지역을 꿈꿉니다. 우리는 공동체성이 회복되어 상생하며,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생명이 존중되는 행복한 지역을 꿈꿉니다.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지역이 되도록 YWCA회원인 우리는 지역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솔선하여 실천하고, 헌신하며 연대할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드는 활동을 할 것이며, 함께 소통하고 봉사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청년] 우리는 청년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그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우리는 청년이 서로 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경쟁이 아닌 건강한 상호 성장을 위해 협력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우리는 청년이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충분한 휴식과 여가 시간이 보장될 수 있는 노동환경이 마련된 세상을 꿈꿉니다. 우리는 청년이 사회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며 다양한 사회진출 보장을 통해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청년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는 비난이 아닌 비판과 대안으로, 갈등이 아닌 소통으로 청년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회원활동가] 우리는 기도하고 참여하고 실천하는 시민활동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과 사회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깨어 있는 사람으로 기도하고 참여하는 시민활동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행함을 일치시키려 노력하는 신앙인으로 작은 일부터 존중, 정직, 나눔, 책임을 실천하고 봉사하는 시민활동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나부터 변화의 주체가 되며, 정의, 평화, 생명 세상을 위한 일에 기쁘게 함께하며, 이웃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시민활동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글로벌 문제를 시민들의 자치와 참여로 해결하는 '지역운동체'가 되고,
'청년'들과 함께 사회변혁에 참여하며,
정의, 평화, 생명의 하나님 나라 실천주체인
'시민 활동가'가 되겠습니다!

2021. 4. 19

YWCA 99주년 회원 선언 참여자 일동

한국 YWCA 창립 99주년 탈핵기후생명선언

| 일시: 2021년 4월 19일(월) 오전11시
| 장소: 커뮤니티 마실 / 유튜브

한국YWCA는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이 시대 절체절명의 과제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구체적, 실천적인 행동으로 지역과 사회의 변화를 만들며 100주년을 맞이하고자 한다.

한국YWCA 창립 99주년 기념식에서 <YWCA 탈핵기후생명선언>을 발표하며 탈핵기후생명 사회를 위한 우리의 결의를 다지고 전국적 행동의 시작을 알리고자 한다.

이에 한국YWCA 회원들의 탈핵·탈탄소에너지 전환사회를 위한 성찰을 담아 5가지 실천을 결단했다.



2021 YWCA 탈핵기후생명선언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았다.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여라.
(신명기 30:19)

전 세계가 기후 위기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하나님의 지구에서 자행된 인간 중심의 탐욕과 무한경쟁의 결과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자 질서이고, 모든 피조물은 각자의 생의 자리에서 가치와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개발과 성장의 논리는 여성과 미래세대, 사회 경제적 약자, 자연과 다른 피조물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빼앗았고, 기후 불평등이라는 참혹한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태 정의를 실현하라는 예언자적 소명에 응답함으로써,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 여성 |
기후 변화를 멈추는 변혁의 주체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의 피해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가혹합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격차 최하위로, 여성들은 비정규직과 돌봄직 종사자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특히 가난한 여성들은 열악한 주거와 노동 환경으로 폭염과 혹한의 기후위기에 직접 노출되면서, 건강에 위협을 받고 높은 에너지 비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과 코로나19 대유행은 재해가 여성들에게 더 치명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단순한 피해자를 넘어 변혁의 주체들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 사회경제 전반의 시스템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여성을 포함하여 기후 재난에 취약

한 계층에게 주거 및 에너지 복지의 통합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정의로운 일자리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탄소 금식을 실천하는 동시에 젠더 관점에 기반한 기후 정의가 실현되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 청소년 |
우리는 다르게 살기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기후 위기를 맞는 마지막 세대이어야 합니다. 화석 연료가 가져다주는 안락함을 선택한 이전 세대는 개발 이면의 심각한 피해를 우리 세대에게 남겼습니다. 맹목적 성장과 차별적 풍요는 사람들 간, 그리고 인간과 다른 피조물 간의 관계를 파괴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걱정 없는 파란 하늘을 누릴 권리가 있고, 재생 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쓸 권리가 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우리의 목소리가 제도화되도록 촉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과 배제 없이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 덜 먹고 덜 쓰고 덜 경쟁하고 덜 이동하며, 더 나누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오래된 미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 지역 회원들 |
우리 지역을 재생가능 에너지 전환과
자립 가능한 지역으로 바꿉니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이 1.5도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파리기후협약은, 전 세계 협약국들이 2050년 이산화탄소 배출이 제로가 되는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세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17개 광역 지자체는 지난 해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2019년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9위로 기후 악당의 꼬리표를 달고 있으

며, 아직도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석탄화력 발전소와 핵발전소는 수도권 지역에 밀집된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희생을 담보한 에너지원입니다. 2030년에 2010년 대비 탄소배출 45% 감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 위주에서 수요 관리 정책으로, 중앙집권 방식의 에너지 공급에서 분권 분산 방식으로, 석탄화력과 핵 발전에서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 삶의 방식 변화와 함께 YWCA 회원 건물의 온실가스 감축 운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가 재생 가능한 지역에너지 전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제로 사회를 위한 지역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한국YWCA 창립 99주년을 맞는 우리는 탈핵 에너지 전환과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이 시대 절체절명의 과제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임을 고백하며, 100년을 이어 지속적인 우리의 실천과 행동을 통해 새로운 탈핵기후생명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단합니다.

- 하나, 우리는 탄소중립 사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탄소 금식 행동을 실천합니다.
- 하나, 우리는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과 정책 제안 활동을 전개합니다.
- 하나, 우리는 기업의 책임 있는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 하고 탈석탄·녹색금융을 지지합니다.
- 하나, 우리는 탈핵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합니다.
- 하나,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연대를 강화 하고 글로벌 행동에 함께 합니다.

2021년 4월 19일
한국YWCA연합회

다른 진보, 다른 민주주의

| 김은주

(사)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여성 후보 득표율 1.78%

새로운 정치적 주체의 부상과 선택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4명의 소수정당과 무소속 여성 후보가 얻은 득표는 2%를 넘지 못했다. 여성의당 김진아 0.68%, 기본소득당 신지혜 0.48%, 무소속 신지에 0.37%, 진보당 송명숙 0.25% 총 1.78%이다. 1.78%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감은 지극히 가볍다. 그러나 그것이 던지는 의미의 파장은 작지 않다. 1.78%밖에 되지 않는 4인의 여성 후보의 득표율 뒤에는 새로운 정치적 주체의 부상과 선택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4.7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 선거 결과는 “20대 청년 유권자들의 투표 봉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대 청년 남성들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게 몰표를 주다시피 하여 그들의 분노를 표출했고, 20대 청년 여성의 15.1%는 소수 정당에 대한 소신 투표로 그들의 저항을 가시화했다. 20대 청년세대는 항상 기성세대의 정치적 올바름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었다.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고 정치에 대해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냉소적인 집단이라고 비판받아왔다. 그런 세대들의 적극적이고도 집단적인 의사 표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특권과 반칙을 정당화하는 내로남불의 기제로 전락해 버린 기성세대의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강한 경고가 아닐까?

특권과 반칙을 정당화하는 내로남불

기성세대의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강한 경고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2030 청년세대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면서부터 ‘세대’가 중요한 투표 결정 요인으로 부상하였다. 연구자들은 세대 변수가 지역주의를 대체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이처럼 한국정치에서 세대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단지 연령에 따른 투표 행태의 차이가 확인되기 때문만은 아니다. 세대 간 투표 행태만이 아니라 이념 성향과 정책 선호에서 있어서도 세대 간의 차이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이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일는지 모른다. 한국전쟁, 압축적인 경제 성장과 5.18 민주항쟁, 그리고 민주화 이후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다른 정치적 경험들이 축적되었기 때문이다.

기성세대의 이념 형성에는 한국전쟁과 분단이라는 역사적 경험이 강하게 작동하였다. 현재의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성향은 기성세대의 관점이 반영된 북한에 대한 인식과 통일 문제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나누어진다. 반면 전후 세대 특히 민주화 이후의 2030년 청년세대들의 이념형성에는 불평등이나 복지문제 등 성장과 분배에 대한 입장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2030 청년세대들은 성별을 떠나 기성세대와는 다른 진보를 구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근거한 다른 정치적 선택들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기존의 보수-진보의 이념적 성향 프레임으로 청년세대의 선택을 “정치적 보수화”로 재단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보궐 선거에서 나타난 청년세대의 오세훈 후보에 대한 압도적 지지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성장 기회의

훼손과 LH 등 기획 및 자원 분배에서의 공정성 침해에 대한 정당한 분노의 표출이며, 합리적 판단에 따른 진보적 실천인 셈이다.

성범죄, 스토킹범죄, 디지털 성폭력, 채용불평등 등

여성들이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제시

4인 여성 후보와 소수 정당들은 기성 정당들의 시계와 관심 밖에 있었던 청년 여성, 소수자, 소상공인 등의 대상들을 포섭하였고 그들의 미래를 위한 대안을 약속했다. 이들의 공약과 지향성은 기존의 보수-진보의 프레임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들은 기존의 보수-진보의 프레임에서 벗어난 다른 정치적 주체에 의한 다른 진보, 다른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진보는 새로운 정치적 주체들의 다른 가치에 의해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차기 대통령선거를 11개월 앞둔 시점에 실시된 4.7 보궐 선거는 보궐 선거 발생에 대한 책임성 문제도, 권력형 성범죄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에 대한 논쟁도 모두 사라진 채 오로지 양대 거대정당의 네거티브 선거운동만 난무했던 최악의 선거이었다. 이러한 최악의 선거를 특별한 선거로 만든 세대가 바로 20대 여성들이었다. 20대 여성들의 “기타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15.1%로 20대 남성(5.2%)에 비해 3배 가량 높았다. 이는 제21대 총선의 기타 정당에 대한 지지도와도 달랐다. 제21대 총선에서의 기타 정당에 대한 지지도는 근소한 차이기는 했지만 남성들이 더 높았다.


20대 여성들은 기타 정당에 대한 투표가 사표가 될 줄 알면서도 차악이 아닌 소신 투표를 선택했다. 그 이유는 성범죄, 스토킹범죄, 디지털 성폭력, 채용불평등 등 각종 두 가지 차원의 설명이 가능하다. 그동안 권력형 심각한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경고의 의미이다.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에는 익명의 2030여성 30만 명이 참여했고 텔레그램 n번방사건 해결을 위한 국민청원에도 30만 명이 넘는 2030여성들이 참여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의 대응은 소극적이었다.

또 다른 이유는 바로 20대 여성들이 직면한 문제들에 대

한 대안을 들고 나온 소수정당과 여성후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4인의 여성후보들은 여성 안전과 성평등 중심의 공약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페미니스트 후보임을 직간접적으로 표방하였다. 특히 2020년에 창당한 여성의당은 여성의 제정당이라는 정체성을 표방하고 여성의제만을 중심으로 한 공약으로 제21대 총선에 이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참여했다. 여성의당 김진아 후보는 “여성이 혼자도 살기 좋은 서울”이라는 슬로건 하에 20대 여성 맞춤형 공약들을 약속했다. 즉 여성주의와 여성의제를 표방하는 여성후보와 정당의 존재는 20대 여성들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시키는데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가 15.1%로 나타난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수정당과 여성후보의 존재가 20대 여성들로 하여금 거리의 정치에서 제도권 정치로의 전략수정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청년세대의 적극적 정치 참여는

‘평등한 대의’에 대한 요구

그동안 대표되지 못했던 다른 지향성을 가진 주체들이 특히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정치의 장에 등장하고 있다. 20세 이상 인구 4천3백만 명 중 32%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 청년세대의 정치적 대표성은 제21대 국회의 경우 13명인 4.3%에 불과하다. 투표권자의 30% 이상을 차지하면서도 청년세대의 가치와 의견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5%를 넘지 않는다. 여성의당을 비롯한 녹색당, 미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많은 소수 정당에는 다양한 가치와 이념을 지지하는 청년세대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성정당에 대한 불신과 다른 가치에 대한 지향성은 청년세대들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로 이어졌다. 청년세대의 적극적 정치참여는 ‘평등한 대의’에 대한 요구이다. 민주주의는 평등의 이름으로 기성 정치에서 배제된 자들, 몹이 없는 자들 그리고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자들을 지속적으로 호명하며,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 누구의 민주주의인가를 묻고 있다. 민주주의는 존재하나 소외되었던 그러나 미래의 주체가 될 민주주의자들에 의해서 재발명되어야 한다. 

비대면 플랫폼, 이제 익숙하지?



| 대학·청년YWCA

COVID-19가 장기화되면서 온라인 회의 플랫폼 zoom, 인스타 라이브, 구글미트 등 다양한 온라인 회의 플랫폼 이용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20년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정책으로 인해 연말, 연초 개인적 모임 역시 비대면 회의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누구보다 비대면 플랫폼을 많이 접하고 있는 20~30대를 대상으로 이러한 모임 형태의 변화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청년토크 역시 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두번째 비대면 대학청년YWCA 전국협의회

홀라 작년 이맘 때쯤 첫번째 비대면 전국협의회를 했잖아. 그때 한번만 비대면으로 할 줄 알았는데 올해도 비대면으로 전국협의회가 진행되네.

밀리 그러게. 벌써 우리 1년 넘게 못 만나고 있구나.

루씨 슬프지만 이런 상황에 적응해야지.

케빈 비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건 괜찮은데 전국협의회는 투표할 게 많으니깐 그 부분이 좀 어렵더라고.

홀라 맞아. 우리는 구글 설문지 통해서 회장 선발도, 안건도 투표했지. 완전한 비밀투표가 안되는 문제가 있긴 해.

루씨 전국협의회는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회원대회는 대면으로 하는 맛이 있는데 너무 아쉽다.

비대면 취미생활 소개해 줘

홀라 나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재택근무 덕분에 집에서 취미생활을 많이 하고 있어. 요즘 온라인 클래스도 많아졌잖아.

케빈 맞아. 넌 어떤 거 해봤어? 나는 얼마 전에 시음키트

를 받아서 온라인 시음회 해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홀라 나는 키트를 배송 받아서 집에서 도자기도 만들고, 뜨개질도 하고, 요리도 배워보고 있어.

케빈 집에서 편하게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음도 하고, 참가자들끼리 소통도 하고 완전 짱이야.

홀라 홈트(홈트레이닝의 줄임말) 관련된 것도 많아. 실내 스포츠 센터 이용을 못하니깐 홈트 관련 물품이나 클래스 소비가 늘어났대.

밀리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듯 대면, 비대면도 취향이 다른 것 같아. 어쨌든 이전 비대면 분야를 빼 놓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건 확실해.

홀라 우리도 YWCA 연중행사를 위한 온라인 키트도 개발하고, 재밌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학교 온라인 수업은 어때?

케빈 나는 통학 시간이 긴 편인데 온라인 수업을 하니깐 이동시간도 줄어서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밀리 나는 별로야. 개인적으로 대학생활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동아리 활동이랑 새로운 친구 사귀는 건데 그걸 못하니깐 너무 지루한 것 같아.

홀라 내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보통 외향적인 친구들은 비대면 수업에 대해 부정적이고, 내향적인 친구들은 긍정적이더라고.

루씨 코로나로 인해서 내향인들의 시대가 온다고도 하잖아. 나는 소심해서 조별과제 할 때 너무 싫었는데 지금은 거의 개인과제 제출 방식이라서 너무 좋아. 성적도 대면 수업할 때보다 올랐고.

밀리 그런 장점도 있었지만 나는 교수님한테 질문도 하고 싶고, 친구들이랑 생각도 나누고 싶은데 온라인 수업은 너무 한정적이야.

홀라 이번을 기회로 코로나 시대가 끝나더라도 사람 성향에 따라 원하는 수업을 선택할 수 있게 대면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골고루 분포되면 좋을 것 같아.

클럽하우스 가입했어?

루씨 아니, 나 초대장 받으려고 여기저기 물어보는 중이야. 최근에는 중고나라랑 당근마켓에서도 초대장 팔더라.

케빈 클럽하우스가 뭐야?

루씨 음성으로 하는 SNS라고 생각하면 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사진이나 글을 저장해서 소통한다면 클럽하우스는 생방송으로 소통하는 거라 '회소성'이 있는 SNS라고 보면 돼.

밀리 맞아. 어플 안에서는 녹음도, 영상촬영도 안되기 때문에 오직 그 시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만 소통이 가능해.

케빈 라디오 같은 건가?

루씨 맞아. 한 사람이 모더레이터(관리자)가 돼서 어떤 주제로 방을 만들면 그 주제에 대해 듣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방식이야. 말을 하고 싶으면 '손을 흔들어'서 스피커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리스너로 있을 수도 있어.

홀라 오... 근데 왜 초대장을 사고 파는 거야?

밀리 다른 SNS처럼 아무나 가입할 수 없어서 그래. 한 사람당 단 2명의 사람만 초대할 수 있고, 누가 누구를 초대했는지 모두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거든.

케빈 오... 나도 들어가 보고 싶다.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

루씨 내가 들어갔던 곳은 '직장인들이 그냥 수다떠는 방'이었어.

밀리 나는 '스페인어 배울 수 있는 방'에 들어가 봤어. 뭔가 내가 원하는 강연을 무료로, 언제든지, 쉽게 찾아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

케빈 궁금하기도 하면서 계속 잘될까? 의심스럽기도 하네.

루씨 장단점이 있겠지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강연을 들을 수 있다는 거야. 아무리 비대면이라도 zoom처럼 영상으로 하는 건 자리에 계속 앉아있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잖아.

밀리 맞아. 출퇴근 시간에 걸거나 대중교통에서 들을 수 있고, 자기 전에 누워서 들을 수도 있고, 운동하면서 들을 수 있는 SNS 인 거지.

케빈 클럽하우스가 잘되면 YWCA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도 만들어서 우리를 알려주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홀라 오! 좋다. 생각보다 우리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면 재밌을 것 같아. 궁금증도 바로바로 풀어주고.

루씨 우리 그럼 슬슬 클럽하우스를 위한 '대학·청년YWCA 방' 이름을 정해볼까?

모두 좋아! 🎉

Clubhouse 클럽하우스는 2020년 3월 미국 실리콘밸리 창업자 폴 데이비슨과 구글 출신 로언 세스가 만든 '쌍방향 음성 기반 SNS'다. 처음에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IT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다가 최근에는 소위 말하는 '인싸(인사이드러는 뜻으로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을 이르는 말)'들만 가입할 수 있는 SNS로 인기를 끌고 있다.

여성의 눈으로 본 3.11 후쿠시마 핵재난 10주년

| 이윤숙
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 달과나무 부소장

후쿠시마 부흥이라는 환상

아직도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올림픽 개최라는 부푼 꿈을 버리지 못한 일본 정부가 기어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그것이 어떤 파국적 결과를 가져올지 경고하는 목소리를 무시한 채 오로지 자신들에게 간편하고 돈도 덜 드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방사능으로 오염된 흙과 쓰레기들을 제염 푸대에 넣어 이동시킨 뒤 이제 후쿠시마는 “안전하다” 외치는 것처럼, 오염수를 바다에 내다버림으로써 후쿠시마 핵사고는 올림픽을 위한 ‘부흥의 슬로건’ 속에 잊혀지기를 강요당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난 지 어느새 10주년이다. 일본정부가 후쿠시마를 ‘여전히 진행되는 핵재난’의 장소가 아니라, 재난을 딛고 일어난 ‘부흥’의 장소로 아무리 선전하고 미화한다 하더라도, 그 곳에 사는 모든 생명들이 여전히 계속되는 ‘피폭 후의 세계’를 아프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감추고 지울 수 없다. 피해자들을 보이지 않게 만들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침묵시킴으로써 핵재난을 망각하게 한다. 올림픽 강행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무시하고 후쿠시마에서 성화를 봉송함으로써 부흥이란 희망을 불러일으키려 하지만, 재난 이후를 살아가는 후쿠시마 사람들은 그러한 국가의 프로젝트가 결코 실현될 수 없는 환상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한다.

핵재난 이후 여성들의 삶

재난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

난한 사람들과 어린이, 노약자들은 재난 이후 더욱 고통스런 상황으로 내몰린다. 그런데 젠더로 따지면 여성들도 남성에게 비해 재난 피해에 취약하고, 그들이 목소리와 요구들은 존중받지 못한다. 얼마전 NHK에서 후쿠시마 재난 대피소에서 벌어진 빈번하고 지속적인 성폭력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어 충격을 준 일이 있었다. 모든 성폭력 피해가 그렇듯 여성들은 침묵을 깨기 위해 고군분투를 해야만 한다.

한 사회의 젠더 불평등은 재난 이후 심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피폭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후쿠시마 여성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그것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에 더욱 절망한다.

일상적으로 돌봄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많은 여성들은 아이들을 비롯해 자신의 가족들이 먹는 음식들에 의해 내부피폭을 당하는 현실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체력이 떨어지고 빈번히 코피를 쏟는 광경을 보면 불안과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자신들의 그런 의식과 불안을 입 밖으로 내기란 너무나 어렵다. ‘안전하다’고 말하는 정부의 말을 믿지 않고 ‘풍문’을 만들어내는 여자, 심지어 ‘비(非) 국민’이라고 낙인찍히기 쉽기 때문이다. 소노 시은 감독의 영화 <희망의 나라>에서는 근접 지역으로 피난한 임산부가 피폭을 우려해 집 안에서조차 거리에서도 방진복을 입고 다니는 장면이 나온다. 이것에 대해 사람들은 이 여성이 필요 이상으로 ‘엄살을 떠는’ 것으로 비난한다.

특히 마을의 리더격인 중년 남성들은 그런 행위를 남성들이 통치하는 세계에 대한 ‘모욕’으로 여긴다.

정부나 자치체의 ‘안전하다’는 말을 믿지 않고 스스로 피난을 떠난 ‘자주(自主) 피난’ 여성들에 대한 비난도 마찬가지로 지이다. 이들은 ‘피난마마’라는 조롱 속에서 피난지에서 새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원을 받기보다는 ‘자기 책임’의 프레임 속에서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재난으로부터 삶을 복구하는 것이란?

하지만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세계에서도 여성들의 고민은 공명이 되어 마침내 모이게 된다. 피폭에 대한 일상적 불안과 비난에 고립감을 느끼던 여성들이 조금씩 목소리를 내자 거기에 공감할 수 많은 여성들이 “나도 그렇다”는 소리로 화답을 하는 것이다. 이런 여성들, 그리고 이 여성들의 목소리에 동의하는 수많은 모여 전국 각지에서 ‘아이들을 방사능으로부터 지키는 모임’을 만들었고, 또 그 많은 모임을 연결한 ‘아이들을 방사능으로부터 지키는 모임 전국네트워크’ 또한 만들어졌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여성들, 부모들이 피폭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서명을 받아 진정서를 만들고, 정부, 지자체, 학교 등과 협상을 하기도 하고, 어린이 건강피해 조사, 안전 급식, 어린이를 잠시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어린이 보양(保養) 요구, 어린이 피폭 재판 등의 활발한 활동들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고립과 불안의 세계에 있던 여성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발화하기 시작했고 그 발화된 목소리들이 모여 ‘엄마들의 혁명’이라는 뜻의 잡지 <마마레보>가 만들어졌다. 이 잡지는 번역, 글쓰기, 디자인 등의 다양한 여성들의 재능을 기반으로 해서 피난자 상황과 피폭 건강조사, 핵발전소 사고 및 후속 조치에 책임을 묻는 재판, 국가 대응 문제 등에 대한 생생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다루어 왔고, 지금은 관련 단행본 출판 활동을 하고 있다.

사실 이뿐 아니라 여러가지 형태로 여성들, 시민들의 저항은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방사능 피해를 가시화하면서 고립과 분열에서 연대와 공투를 모색한다. 날마다 공기중




방사능 피해를 가시화하고 생명돌봄의 책임을 환기하는 유기 미사토씨의 일러스트 “지키자”

의 방사능을 체크하는 모니터링 포스트를 철거하는 지자체의 방침에 저항하여 철거를 저지하는 데 성공한 후쿠시마 시민들, 빈번히 패소하면서도 피폭 책임을 묻는 국가소송을 계속하는 사람들...

여성의원비율, 성별격차 지수가 최하위 수준이며 더구나 후쿠시마현 시정촌 수장 전원 남성이고 지방 의회 의원 및 공무원의 관리직, 지역자치회장 등의 여성비율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방사능에 민감하고 재난의 일상에서 삶을 일구는 여성들의 싸움은 ‘부흥의 환상’을 깨뜨리면서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재난 이후 삶을 다시 살아낸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재난을 특정집단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기회로 삼는 ‘재난 자본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다. 재난으로부터 삶을 복구하고 재난을 막을 힘은 무엇으로 오는가? 그것은 피폭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일본여성들의 싸움에서도 보듯이,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행해온 생명 돌봄의 다양한 경험 속에서 고투하며 획득한 감각과 사유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재난의 본질을 제대로 규명하고, 그 책임자들과 싸우며, 재난을 막고 생명과 돌봄의 가치가 중시되는 정치 시스템과 사회문화, 사유들을 새롭게 만들어감으로써 가능하게 될 것이다.

후쿠시마 핵재난 10년은 기후위기와 팬데믹 상황을 ‘개발’과 ‘새로운 성장기회’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너무나 엄중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후쿠시마 재난에서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탄소 배출 없는 핵발전론’에 대한 반론

- 기후위기 대응에 핵발전은 함께 할 수 없어

| 조천호

경희사이버대학 기후변화 특임교수

화석 에너지의 종말은 화석 연료의 고갈이 아니라, 화석 연료를 연소시킨 결과로 일어나는 기후위기 때문이다.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화석연료 에너지원을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핵발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핵발전은 핵재앙, 핵폐기물, 핵확산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위험을 뒤로 감춘다면 핵발전도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모든 걸 다하자(do everything)'에 포함될 수 있다.

자동차 사고로 많은 사람이 사망한다 해도 사회적 탄소 배출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핵발전 사고가 일어나면 그 뒤 수습에 그동안 핵발전으로 인한 모든 편익을 능가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 이후 그 지역은 회복 불가능하게 되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처리 비용이 2018년까지 236조원에 달했다. 그 비용으로도 해결하지 못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내다 버리겠다고 한다. 게다가 비용 대부분은 핵발전 회사가 아니라 세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우리 국토는 회복 불가능의 영역으로 뒤도 될 정도로 여유롭지 않다. 핵발전 상위 10개국 가운데 인구밀도는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 핵발전 주변 지역 인구가 많고 원자료가



패러다임이 다른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은 공존할 수 없다. 출처: 픽사베이

조밀하게, 그것도 한 부지에 많이 몰려 있다. 고리 핵발전소 반경 30km 이내에 300만 명이 살고 있다.

인간이 제한 없는 합리성을 지니고 있다면 세상에 무슨 문제라는 게 있거나 하겠는가? 핵발전 사고에 유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부는 없다. 일본 동북부 지진과 그에 따른 핵발전 사고는 가장 치밀하게 구축된 일본의 안전망 역시 무력하다는 걸 보여주었다. 핵발전 위험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지만, 안전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사고뿐만이 아니다. 원자로에서 수만년 동안 방사능을 가진 폐기물이 나온다. 우리 세대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 미래 세대의 장기적 이익을 내다 버리는 것이다. 핵발전은 세대간 착취라는 점에서 더욱더 문제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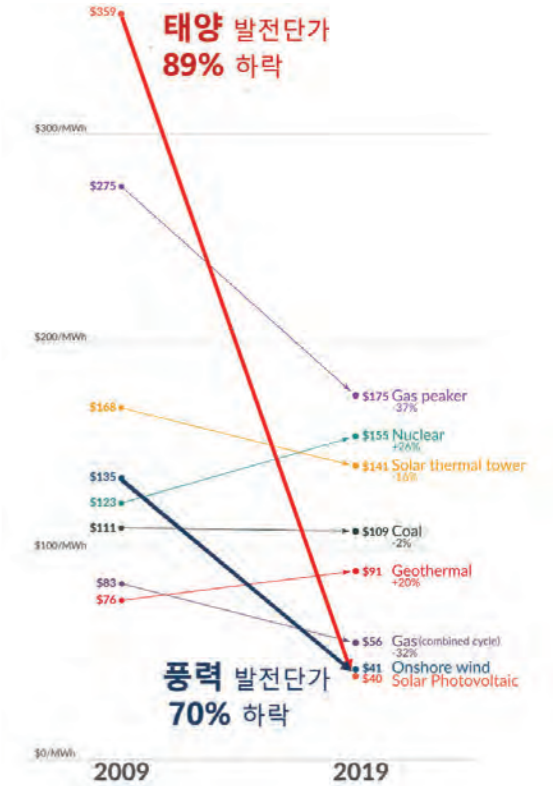
우리는 내일의 위험을 걱정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오늘 당장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현재의 전력 공급 체계에서 핵발전은 필요하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그러해야 할 근거는 없다. 핵발전은 미봉책일 뿐이며 대체 불가능하지도 않다. 이제 핵발전은 '위험과 혜택' 수준뿐만이 아니라 '비용과 효과' 측면에서도 더 가능하지 않다. 핵발전이 시장에서 무너지고 있다.

위험-혜택' 아닌 '비용-효과' 측면만으로도 불필요

얼마 전까지도 석탄 발전이 가장 저렴했기 때문에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력 비용은 기술 혁신뿐만이 아니라 연료 비용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석탄 발전은 기술 효율성을 향상할 여지가 거의 없고 연료인 석탄은 총 발전 비용의 약 40%를 차지한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석탄 발전 비용은 지난 10년 동안 2%만 하락했다. 두번째로 큰 가스 발전은 그 비용이 지난 10년 동안 30% 이상 더 싸졌다. 이는 파쇄공법 개발로 셰일 가스 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핵발전 비용은 지난 10년간 26% 올랐다.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예전에 고려하지 않았던 위험을 막아야 하는 비용이 증가하고 최근 세계적으로 핵발전소 수요가 적어져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기 때문이다.

빌 게이츠는 그의 책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에서 “핵발전은 하루 24시간 지속해서 공급할 수 있는 탄소 배출이 없는 유일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이상적이다”라고 주장한다. 재생에너지는 태양이 빛나고 바람이 부는 조건에 의존하여 간헐적으로 생산되므로 핵발전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저 부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2020년 영국 서섹스대학의 벤저민 소비쿨과 연구원들은 <네이처 에너지> 논문에서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의 탄소 감축 효과를 분석했다.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의 관계는 서로 배타적이고 경쟁적이어서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밀어낸다. 정부가 저탄소 에너지 예산을 핵발전에 투입하면 재생 에너지 기술에 투자할 자금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런 관계는 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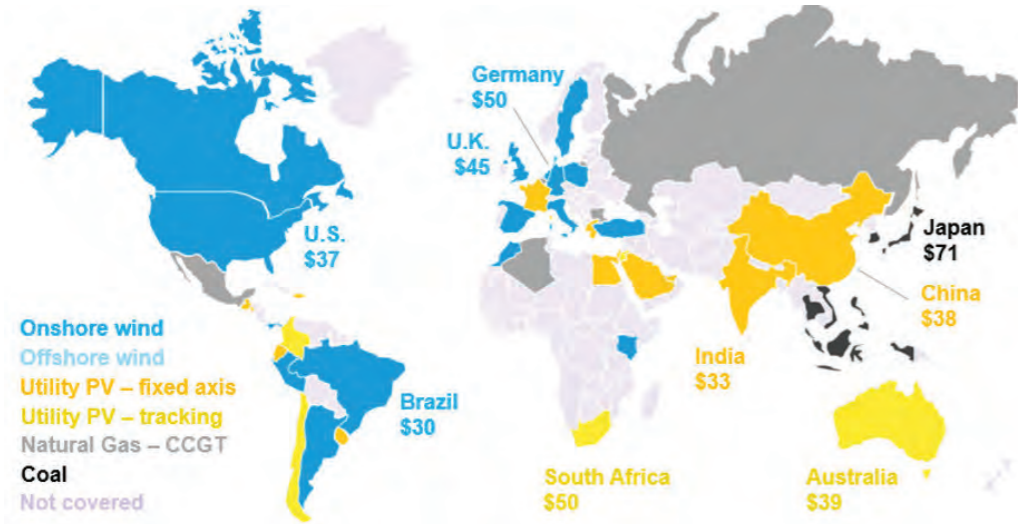


에너지원 별 발전 단가(LCOE). 출처: Our World in Data

과 재생에너지가 공존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무너뜨리고, 핵발전 확대가 오히려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의 10% 정도를 넘으면 지속적인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진다고 했다. 2020년 유럽연합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38%에 달해도 전력 공급이 안정적이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리드 기술의 혁신과 그 기술을 실현하는 배터리 가격의 하락 때문이다. 배터리 가격은 지난 10년 동안 약 80% 이상 하락했다. 재생에너지 100%(RE100)를 향한 기술혁신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비용은 각각 89%와 70% 떨어졌다. 재생에너지에 기술혁신이 집중되고 이와 함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020년 국제에너지



2020년 국가별 발전단가(LCOE)가 가장 싼 에너지원. 출처: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BNEF)

지기구(IEA)는 태양광 발전이 가장 저렴한 전기 공급원이 라고 선언했다. 그동안 재생에너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나 라는 정부 보조금을 줄이거나 심지어 없애도 재생에너지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2019년 전 세계 신규 전력 중 태양광과 풍력이 72%를 차지하였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커 질수록 출력 조절이 되지 않아 유연성이 떨어지는 핵발전은 에너지 체계의 걸림돌이 된다.

지난 10년 발전비 태양광 89%하락 vs 원자력 26% 상승

세계 전력 시장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다. 일본의 미쓰 비시가 터키와 베트남에서, 히타치와 도시바가 영국에서 이 미 수주한 핵발전소 사업을 포기했다. 계속 진행할수록 더 큰 손실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2019년 이후 3년 동 안 재생에너지를 45GW 증가시키는 반면 핵과 석탄 발전은 24GW 줄일 예정이다. 2020년 유럽연합(EU)은 2050년까 지 탄소 중립을 위한 '그린딜' 전략을 수립했는데 여기에 핵 발전을 제외한다 명시했다.

빌 게이츠는 그의 회사인 테라파워(TerraPower)를 통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소형 차세대 원자로를 설계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2019년 1056억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는 빌 게

이즈조차도 막대한 납세자 자금 없이는 그 핵발전소를 건설 할 수 없는가 보다. 빌 게이츠는 테라파워가 설계한 원자로 기술을 시범 운영하기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수십억 달러 를 지원하도록 의회를 설득하려 했다.

우리나라 보수 언론이 주장하듯 핵발전이 그토록 엄청난 이익이 나는 노다지 시장이라면 왜 기업과 개인 투자만 으로 해외 진출을 하지 못하는가? 핵발전은 엄청난 정책 지원과 막대한 세금 지원으로만 건설된다. 이익이 난다면 소 수가 차지하고 손실이나 피해가 발생한다면 시민 모두가 감 당해야 한다.

핵발전 수출 시장이 수백조원이라는 주장도 실체가 아닌 희망 사항에 불과하다. 주요 선진국 대부분은 현재 가동 중 인 핵발전소 수명이 다하면 새로 짓지 않고 퇴진시킬 예정이 다. 중국은 2018년 재생에너지에 910억달러를 투자했지만 원자력에는 65억달러를 투자했다. 중국, 러시아, 동유럽과 중동을 제외하곤 새로운 핵발전소 투자를 계획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세계 시장의 중심부에 있는 우리나라가 이들 나라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는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뒤 떨어진 재생에너지 후진국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유

럽 주요 국가는 40%를 넘어가고 있고 중국과 일본은 20% 를 넘고 트럼프 대통령 시절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했던 미 국조차도 20%에 도달하려는 반면 우리나라는 6%에 머물 고 있다.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BNEF)의 자료에 따 르면 2020년 세계 인구 3분의 2가 사는 지역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가장 싼 신규 발전인 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세계 기 준에서 재생에너지보다 비싼 석탄 발전 비용이 가장 싸다.

우리나라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세 계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해야 한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대기업들 은 자신들에게 납품하는 기업들에 100% 재생에너지로 만 든 상품을 요구하려 한다. 이 재생에너지에는 핵발전이 포 함되지 않는다. 핵발전은 저탄소 에너지이긴 해도 핵폐기물 을 쏟아내 재생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바이든 새 정부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 에 탄소 국경세 부과를 준비 중이다. 선진국들은 앞선 재 생에너지 기술력으로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 대한민국은 핵과 석탄 발전을 붙들고 있다가 세계 시장에서 걷어차기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가장 큰 야당과 여러 언론은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를 할 자연 여건이 안된다고 한다. 태양광은 위도가 낮을수록 유 리한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의 나라 독일보다도 위도가 무려 15도나 낮다. 우리나라는 풍력이 북유럽처럼 풍부하지 는 않지만, 상공에 제트기류가 흐르기 때문에 작다고 볼 수 없다. 보존해야 하는 농지와 산지가 아니어도 건물, 고속도 로와 철도 주변, 주차장, 댐, 저수지와 대륙붕 등 태양광과 풍 력 발전을 할 곳이 우리 국토에 널려 있다.


패러다임 다른 핵발전-재생에너지 공존할 수 없어

우리 사회가 어떤 에너지를 사용할 것인가는 기술적인 문 제를 넘어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핵발전은 원자핵을 분 열시켜서, 그리고 화석 연료는 분자를 태워서 에너지를 발 생시키므로 이들 에너지는 특정 장소에서 전력으로 만들어

도시와 산업 지역으로 전달한다. 태양과 바람은 원자핵과 화석 연료에 비해 에너지 농축이 적어 수많은 지역에서 에 너지를 모아 배전망을 통해 분배한다. 하지만 이런 비효율성 과 제약이 오히려 실질적인 이점이 된다. 곧 핵과 석탄 발전 은 소수가 지배하는 중앙집권적인 에너지 체계지만, 재생에 너지는 분산적이므로 시민이 지배할 수 있는 분권적인 체계 이기 때문이다. 제대로 정책이 수립된다면, 재생에너지는 소 수가 지배하는 에너지 독점을 무너뜨려 우리 공동체를 바로 잡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물질적으로 유한한 지구에서 더는 인간의 무한한 욕망 이 달성될 수 없다. 이미 인간이 만든 세상은 지구 한계를 넘 어서고 있다. 핵발전은 에너지 소비의 지속적인 성장을 전 제로 한다. 태양과 바람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세상을 만들 어야 인류는 지구에서 지속할 수 있다. 이 세상에 에너지 결 핍이 있다면 '성장'이 아니라 정의로운 분배를 통해 해결해 야 한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없었던 '성숙'한 세상을 만들 어야 한다.

<과학혁명의 구조>의 저자 토머스 쿤은 "과학은 패러다 임 전환을 통해 발전하며 이는 개종에 비유된다"라고 했다. 개종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념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패러다임 전환은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의 총체적인 과정이다. 일부만 받아들이고, 일부 는 받아들이지 않는 식의 취사선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천 동설과 지동설이 함께 수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쿤은 '과학 의 역사는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커다란 건물 하나를 짓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옛 건물을 어느날 포크레인으로 밀어버 리고 그 옆에 새 건물을 짓는 과정이다"라고 했다.

마찬가지다. 핵발전과 재생에너지는 그 패러다임이 다르 므로 두 가지 모두를 선택할 수 없다. 과거의 방식을 지속하 느냐, 미래의 지속 가능성으로 전환하느냐의 패러다임 경쟁이 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 이 글의 출처는 3.11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을 맞아 핵그린 주관으로 3월 10일(수) 오전 11시에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드린 탈핵예배의 <자료집>입니다.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추진의 의미와 과제

|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시민사회 활성화와 제도

사회 3분론과 시민사회 중심의 사회발전론

현대 사회 운영구조로 '3분 사회론'은 익히 알려진 바이다. 국가(정부)-시장(기업)-시민사회(시민사회조직) 3영역으로 구분하고, 시민사회를 제 3섹터로 정의하고 있다. 과거 국가(1섹터)와 시장(2섹터) 주도의 사회가 실패하면서 제 3섹터로서의 시민사회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다. 즉 국가와 시장 중심의 사회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강한 시민사회' 건설을 통한 사회발전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시민사회 활성화는 국가의 책무

서구사회는 오래 전부터 시민사회 활성화, 강한 시민사회를 국가의 핵심전략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국가의 책무로 인식하고 있다. 정부가 경제발전을 위해 시장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를 제정하며 지원체계를 구축하듯이, 시민사회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시민사회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과 힘을 키우는 제도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 또한 국가의 책무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영국 노동당 토니 블레어 정부는 영국이 처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강한 시민사회 형성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정부와 시민사회 간 공동비전과 이행계획을 담은 「사회협약」 체결(1998년),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간 사회협약 체결(1999년), 정부-시민사회 간 파트너십을 통한 5개 목표를 담은 비전을 발표(2010년)하고 이를 담당할 기구

로 정부 내 시민사회청을 신설하였었다. 이어 집권한 보수당의 케머런 정부는 2010년 시민에게 더 많은 참여와 권한, 역할을 강화하는 「빅소사이어티」를 제시하고, 2018년에는 지역과 마을에서부터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화한 '시민사회전략'과 지방정부에서는 '자원봉사 및 공동체 섹터 전략'을 수립하기도 했다.

영국은 정당과 정파를 떠나 영국사회가 처한 사회문제를 시민사회 활성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국가전략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한국사회에서의 시민사회의 성장과 한계

1987년 6.10 민주항쟁 이후 한국사회에서의 시민사회 영역은 지속 성장하여 왔지만 시민사회 활성화를 국가 차원의 정책적·전략적 접근을 해본 경험은 없었다. 김대중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1999년)」을 제정하였지만 '단체 지원사업' 정도로 추진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국무총리 산하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설치하였지만 시민사회 정책 논의의 기구 이상을 넘어서지는 못하였다.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시민사회 성장과 발전을 주요 국정 과제로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와 비해 차이가 있지만 실제 국정 운영에서 시민사회 중심의 사회발전 정책을 추진했는지는 의문이다. 그런 점에서 아직 시민사회 영역의 성장과 생태계 조성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이자 전략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이제 한국사회에서도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과 정책, 지원

체계가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이 기후 위기, 코로나19 위기, 사회 갈등 및 불평등 위기 등 한 국가가 처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발전전략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요청 앞에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은 새로운 촉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의 경과 및 의미

추진 및 진행 경과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은 200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시민사회의 핵심적인 전략적인 입법과제였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대통령후보 공약사항으로 <시민사회 입법 및 제도개선 10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제안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여 100대 국정과제 중 6번째 과제 '시민사회 성장기반 마련'에 반영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었다.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진선미·권미혁 의원이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기본법안'명으로 입법발의 하였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현 21대 국회에서는 진선미·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상태이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내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다만 긍정적인 것은 그동안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에 소극적이었던 정부(행안부)가 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부처 및 지자체, 시민사회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별도의 법안을 작성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3년이 지난 2020년 5월에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과도기적인 법령으로 제정되었다는 것이 그것이다. 비록 대통령령이지만 국가가 시민사회 활성화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을 주요 시책으로 제시한 최초의 법령이라는 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근거해 「4기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출범(2020.8월)하였고, 「국가 시민사

회발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완료(2020.6월 ~ 2021.1월)되었으며, 「시·도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표준조례」를 작성하여 시·도에 권고(2020.12월)하면서 서울시, 충청남도, 울산시 등 시·도 차원에서 조례 제정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주요 내용¹⁾

- 명칭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 (총 12조와 부칙으로 구성).

- ① 목적 (안 1조)
 - 이 법안은 경제적·사회적 현안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안 제3조)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환경 조성 및 지원 시책 수립·추진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수립·시행평가 시 시민사회와 협의 및 협력체계 구축 노력.
- ③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 원칙 (안 제4조)
 - 1. 시민사회의 자율성·다양성·독립성을 보장할 것
 - 2.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공익활동의 사회적 기여 존중
 - 3. 공익활동을 제약하는 제도 개선
 - 4. 공익활동 촉진 시민사회 전반에 다양하고 공정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
 - 5. 정책의 수립·시행·평가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소통·협력 강화
- ④ 기본 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 (안 제5조~제8조)
 - 행안부 장관은 기본계획(5년)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시행 계획 수립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도 기본계획(5년)과 시행 계획 수립
- ⑤ 시민사회위원회 (안 제9조~제10조) 총리 소속으로 시민사회위원회 설치, 시도지사는 시도 시민사회위원회 설치
- ⑥ 한국시민사회재단 설립 (안 제11조) 시민사회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 사업·정책 등 지원 추진
- ⑦ 지역 시민사회지원센터 설치(안 제12조)
 - 시·도는 '시·도 시민사회지원센터' 설치 또는 전문기관 지정(강행)
 - 시·군·구는 '시·군·구 시민사회지원센터' 설치 또는 전문기관 지정(임의)

1) 본 법안의 내용은 민형배 의원의 '공익활동의 증진 및 시민사회 발전 기본법안'에 대해 정부 부처 및 지자체,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해 작성한 법안임

창립100년을 넘어 YWCA의 새로운 전환

| 박동순

(사)한국YWCA연합회 조직혁신지원국 국장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최근 지국을 'VUCA시대'라고 한다. 변동성(Volatile),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의 각 앞 글자를 따서 나온 신조어이다.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비상상황을 칭하는 1990년대의 전쟁 용어가 지금의 시대를 대표하는 말이 되어버렸을 정도로 모든 조직들이 바로 다음 주에 있을 회의나 행사조차 대면 모임이 가능할지를 장담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한국YWCA는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반드시 혁신해야 할 과제로 조직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 여성들의 삶의 변화, 지방자치와 분권, 공익단체에 대한 투명성과 책무성이 강화되는 시대적 변화에 맞춰 조직을 혁신하지 않고서는 YWCA가 지속가능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래된 조직, 큰 규모의 조직일수록 변화는 쉬운 일이 아니다. 100년의 전통과 역사 속에 YWCA만의 조직 문화가 커져이 쌓여졌고, 좋은 문화 뿐 아니라 시대에 맞지 않는 우리만의 관행들도 함께 뿌리내려 있기 때문에 이미 조직 문화로 자리잡은 것을 단시간에 한꺼번에 바꿔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수십 년간 업무를 내지 못했던 YWCA 구조개편을 정책으로 결단한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이다.

**'조직 변화'는 '성장과 발전'의 문제 아니라
'조직 생존'의 문제**

VUCA시대라고 일컫는 지금, '조직 변화'는 '성장과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생존'의 문제이다. 3차 산업혁명을 지나며 세계 100대 기업의 50%가 사라진 것처럼 지금 세계는 또 한 번의 혁명적 변화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 영리, 비영리의 영역을 넘어 모든 조직이 지속가능성을 두고 '조직 구조 변화'를 통해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이다. 기능 중심으로 나뉘어져 있는 융통성 없는 위계적인 조직 구조로는 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단위 조직을 강화하고 서로 협업하며 유연한 네트워킹을 통해 조직 탄력성을 키울 것인가 하는 것이 조직 변화의 중요한 화두이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YWCA연합회가 중앙 법인의 조직 개편과 회원YWCA의 법적 구조 분리를 통한 재구조화의 정책 결단과 조직 혁신을 선언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임과 동시에 시대에 맞는 방향적 전환이다.

한국YWCA는 2020년 'YWCA 재구조화 정책'을 결정한 후로, 현재 9개의 회원YWCA가 지역법인으로 전환을 완료하였고 19개 YWCA가 법인화를, 24개 YWCA가 비법인사단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회는 이를 위해 회원YWCA 재구조화 전환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각 지역에서 YWCA가 책임 있는 지역운동조직으로 역할을 강화시켜 연합회와 회원YWCA가 중앙과 지점의 법적인 종속관계를 넘어 YWCA의 운동의 원칙과 기준을 중심으로 서로 더욱 굳건히 연대하고 협력하는 구조로 새롭게 전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추진의 의미

첫째, 시민사회의 활성화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정책적 역할을 규정한 최초의 법률이라는 점이다.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의 가장 큰 의미는 시민사회의 활성화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역할에 필요한 법률 근거를 최초로 마련했다는 것이다. 물론 2020년에 제정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이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조항의 상당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력과 실행력 측면에서 법률과 비교될 수는 없다. 대통령령은 정책적 기능은 가능하나 예산을 수반하는 실행기구 설립은 불가능하다. 이에 비해 제시된 법안에는 실행기구인 '한국시민사회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어 정책 실행력 측면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

또한 대통령령은 중앙행정기관에는 규정력을 가지나 구속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권고적 규정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정책 추진에 수반되는 예산 확보에서도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제정된다는 것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대상 범위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정책의 수용력과 구속력, 실행력이 확고히 담보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둘째, 시민사회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의 다양한 정책 근거가 마련된다고 볼 수 있다.

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 시민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환경 조성 및 지원 시책 수립·추진 ■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수립·시행·평가 시 시민사회와 협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한편 '기본원칙'에서는 ■ 공익활동을 제약하는 제도 개선과 공익활동 촉진 시민사회 전반에 다양하고 공정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 ■ 정책의 수립·시행·평가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소통·협력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를 의무화하


였고, ■ 시민사회 조사나 통계 등을 구축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의 이러한 조항은 시민사회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법안에는 '시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구성',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 시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해 '시도별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증진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역과 풀뿌리 차원에서 시민사회를 확대·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시도 시민사회 활성화는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협치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령 제정 이후 3개 광역에서 조례가 제정²⁾되었거나 제정 단계에 있으나, 법안이 제정될 시 모든 지자체에서 시도 조례와 기구를 설립, 다양한 시책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의 적극적 행동 필요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은 한국사회를 실질적인 시민사회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한국사회가 처한 다양한 어려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기반이자 역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은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가 되는 해이다. 그런 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점을 고려할 때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할 뿐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제 섹터로서의 시민사회의 확장·성장 차원에서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에 전 역량을 모아야 할 때이다. 

2) 서울시는 2020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울산광역시시는 12월에 제정하였고, 충청남도는 현재 도의회에 발의된 상태임

환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중앙 중심의 정책과 매뉴얼로는 시민운동과 조직운영 모두 현대사회의 다양성과 지역성을 포괄할 수 없다. 매뉴얼은 현장에 있고, YWCA에 당면한 모든 문제의 답은 지역에 있다. 2020년 회원YWCA 지역법인 전환 과정에서도 정부의 매뉴얼은 매뉴얼이고, 법인을 허가하는 각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사항과 절차가 상이한 것을 보면서, 향후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으로 각 회원YWCA가 재구조화를 완료한 후 시시각각 변화되는 지자체의 정책 변화에 맞춰 조직의 투명한 운영과 YWCA의 목적 운동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회원YWCA 가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재확인할 수 있었다.

회원Y 본부 역량 강화하는 재구조화

연합회 구조개편의 핵심 키워드, '지역'과 '청년'


재구조화 지원 과정에서 회원YWCA 본부의 역량을 재점검하고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회원YWCA 본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병아리가 안에서 쪼는 것과 닭이 그 소리를 듣고 밖에서 껍질을 쪼아준다는 '졸탁동시(啗啄同時)'라는 사자성어처럼, 회원YWCA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연합회의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다.

지역이 약화될수록 답다운이 되고 지원관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21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연합회 구조개편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지역'과 '청년'이다. 회원YWCA의 지역운동이 살아야 한국YWCA의 운동이 살고, 회원YWCA가 건강한 조직으로 자리매김해야 서로의 연합과 연대가 굳건해질 수 있기에 회원YWCA의 재구조화 지원을 통해 회원YWCA를 지원함과 동시에 연합회의 의사결정에 지역의 요구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대표성 확대를 중요한 개편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또한 'YWCA의 청년운동성'강화를 위해 청년 회원조직의 지원을 강화하며, 마찬가지로 의사결정 구조 안에 청년의 대표성을 확대하여 미래 세대가 아니라 현재 YWCA를 함께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책임과 역할이 가능하도록 개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과 청년에 대한 할당제 등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해 연합회 구조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

시대정신에 맞는 YWCA 정체성과 존재 이유 점검

재구조화 정책은 복잡한 중앙법인과 회원YWCA와의 법적 관계 정비와 조직 형태의 전환을 넘어서서 시대가 요구하는 더 책임 있고 신뢰받는 비영리조직, 시민운동체로서 새롭게 혁신하고 점검하며, 변화를 실험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1922년 창립한 한국YWCA가 여성운동, 민간공익 활동을 펼친 선구자적인 모델이었다면 지금은 다양한 기술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비영리조직과 시민단체가 무수히 많아졌다. 두 번째의 세기를 맞는 한국YWCA가 가야할 길은 법과 제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 이행 노력을 넘어 기독교여성시민단체로서 하나 남나라의 정의와 가치를 더욱 내재화할 수 있는 조직구조와 시스템으로 혁신하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전국 52개 회원YWCA와 연합회의 재구조화의 과정이 단순히 법적 관계 정비와 조직 구조개편을 넘어 여성, 기독교운동성, 청년성, 회원성을 가진 운동체로서 시대정신에 맞는 YWCA 정체성과 존재 이유, YWCA다운 조직 문화를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대면하지 못하고 심리적인 고립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사실은 내 주변을 넘어 오히려 전 세계가 하나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더 많이 확인할 수 있는 시기였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시기는 언택트가 아니라 오히려 초연결사회이다. 한 회원YWCA의 문제는 한국YWCA연합회 모두의 문제이고, 일부 시민사회 및 비영리조직의 불투명한 활동이나 기독교계의 대면 예배 강행으로 사회적 신뢰를 잃었던 경험 등 모두 우리와 무관한 상황들이 아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 기독교인으로서 YWCA가 나서는 조직 혁신의 새로운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를 바로 세우고, 정의·평화·생명운동을 더욱 힘있게 실천하는 건강한 공동체로서 창립 100년을 맞이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달의 현장①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YWCA캠페인



미얀마 시민에게 민주주의와 평화를!

YWCA는 올해 2월 초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감행하여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한 이후 군부의 권력 장악과 무력 강경 진압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미얀마의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마음을 담아 보내 주신 모금액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행동하는 시민들의 생필품 지원, 피해자들의 가족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지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모금 계좌: **농협 301-0226-0851-01** (사)한국YWCA연합회
(3월 모금 현황은 본 책자 47쪽에 있습니다.)

<미얀마 지지를 위한 한국YWCA 성명서>

우리 YWCA는 평화의 사도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얀마 군과 경찰에게 미얀마 국민에 대한 폭력을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19살 태권소년 앤젤은 민주주의와 동료시민들을 보호하다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2, 제3의 앤젤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YWCA 가족은 또 다른 앤젤이 되어, 미얀마 국민과 함께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함께 싸워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미얀마 군과 경찰은 당장 폭력과 살상을 중단하십시오.

우리는 미얀마의 정의가 회복되는 날까지 미얀마 국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사)한국YWCA연합회

이제 생명을 향하여

38개 회원YWCA, 온라인 탈핵 캠페인 펼쳐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핵사고가 발생한 지 어느새 10년이 지났다. 여전히 후쿠시마의 핵발전소는 해체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하는 등 방사능 관련 문제들은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삶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우리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핵발전이 주는 편리성과 청정 크린에너지라는 거짓 이미지 때문에 정부는 핵발전 정책에 대한 반성 없이,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핵발전 수출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한 번 오염되면 결국 모든 생명의 멸절이라는 재앙을 불러오는 핵의 위험을 경계하며 이제 더 이상 미래 세대에게 핵폐기물의 부담을 미룰 수 없다.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을 맞이하여, 생명의 길을 걷기를 결단하며 전국 회원YWCA 공동 YWCA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제 생명을 향하여” 라고 외치며 온라인 캠페인에 참여해 준 회원YWCA는 총 38개 회원YWCA(강릉, 거제, 고양, 광주, 김해, 남원, 논산, 대전, 동해, 마산, 목포, 부산, 사천, 서귀포, 서울, 성남, 세종, 수원, 순천, 안양, 양산, 여수, 울산, 의정부, 익산, 인천, 전주, 제주, 진주, 진해, 창원, 천안, 청주, 춘천, 충주, 파주, 포항, 하남)입니다.

| 성명서 |

후쿠시마 핵사고 10년, 이제는 생명을 향하여!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2:16)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간 핵사고가 얼마나 인간을 무력하게 만드는지 경험했습니다. 세슘만 해도 30년의 반감기가 열 번이 지난 300년이 흘러야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양이 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방사성 물질들이 핵사고 한 번으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인근 지역을 오염시켰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 것은 물론이고, 제염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핵발전소의 녹아내린 연료봉은 사람의 힘으로 꺼낼 수도 없습니다. 처음엔 로봇조차 여기에 가동을 멈췄습니다. 핵사고는 또 다른 폭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심각한 방사능 수치로 인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복구를 이유로 피난을

떠난 사람들을 강제로 귀환시켰고, 귀환을 거부하는 이들은 지원금을 끊었습니다. 이주노동자와 노숙인을 모집하여 후쿠시마 핵사고 수습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핵사고의 해결을 꿈꾸기엔 10년의 세월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10년,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에서 탈핵이 공약되었고, 탈원전이 대통령의 입으로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탈핵을 선언한 대통령의 임기 동안 5기의 핵발전소가 상업 가동을 시작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동을 멈춰야 할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멈추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1심에서 수명연장이 무효하다고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월성1호기는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경제성 평가 조작’이 있었다는 논란에 직면한 것입니다. 안전성과 지역수용성을 골고루 평가할 때 월성1호기는 유지 자체가 무의미한 핵발전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폐로하는 과정은 순탄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여러가지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사성물질의 누출이나 잘못된 부품과 장치로 인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은폐됩니다. 한여름 태풍으로 인해 발전소가 위험에 처할 뻔 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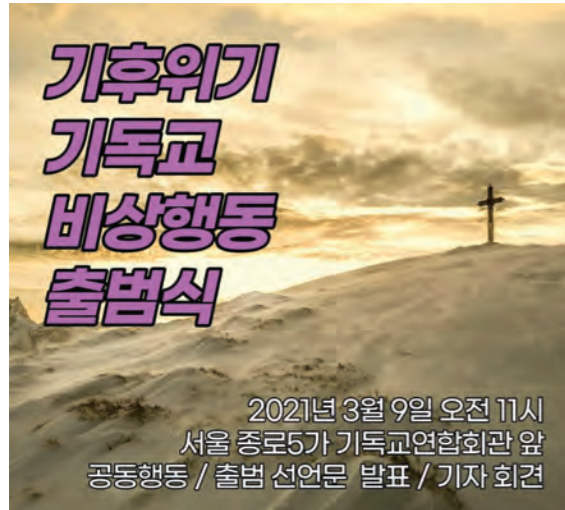
우리가 익히 알듯 기후위기가 초래할 파국과 핵사고가 만들어내는 고통은 서로 모양은 다르지만 시작 지점이 같습니다. 둘 모두는 인류의 탐욕이 불러일으킨 재앙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인류가 만들어온 문명은 화석연료와 핵발전이 더 많은 풍요를 가져다 줄 것처럼 선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선사하는 내일은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폭염과 혹한, 냉해와 가뭄, 폭우와 폭설, 메뚜기떼의 창궐과 전염병의 전파는 우리의 삶의 기반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발전이 상용화 된 지 100년도 채 되지 않았으나 세 번의 큰 핵사고가 있었고, 핵사고로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방사성 물질로 인하여 건강과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게다가 해결책도 존재하지 않는 독성 물질인 핵폐기물들이 핵발전을 지속하는 한 계속 생산됩니다. 심지어 기후위기가 핵발전소 사고의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태풍이 소외전력상실로 인한 사고를 만들어냈고, 폭염으로 인한 강물의 온도 상승이 핵발전소 냉각수 공급을 멈추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해수면 상승이 해안가에 존재하는 핵발전소 전체를 위협합니다. 탐욕으로 질주하는 열차가 문명의 종착역에 닿기 전에 이제라도 멈춰 세워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머뭇거리고 외면하는 동안 1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이제라도 참회하고 돌이켜 생명을 향해 걸어가야만 합니다. 후쿠시마 핵사고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신앙선언>의 고백처럼 “핵은 기독교 신앙과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통제 할 수 없고, 해결하지도 못할 사고이며, 무수한 폭력을 양산하고, 이내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갈 위험천만한 일이 바로 핵발전이라는 사실을 후쿠시마 핵사고는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우리는 이 교만과 탐욕, 그리고 죽음의 길과 명백하게 결별하고 생명을 향하여 걸어가야만 합니다. 뒤로 물러설 수 없고, 되돌아 갈 수도 없습니다. “생명을 택하라”(신 30:19)의 말씀에 따라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생명의 길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갑시다.

2021년 3월 7일


탈핵주일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

· ‘이제 생명을 향하여’는 2021년 핵그린 탈핵연합에배 주제입니다.



한국YWCA연합회는 범 기독교계의 기후위기 연대체 출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작년부터 기독교 환경단체 및 기독교 단체들과 함께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 출범을 준비해 왔다. 2021년 3월 9일(화) 11시 한국YWCA를 비롯한 기독교단체와 교회들은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창조세계를 온전히 지키고 생명을 돌보아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 출범에 나섰다.

코로나 상황에서 각 비상행동 집행위 단체 활동가 9인이 모여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 출범식 첫 번째 공동행동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지구 생태계와 인간 사회의 위기 상황은 다가올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세계에서 살아가는 지금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천명했다. 또한 앞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와 활동을 알리고 동참을 요청했다.

앞으로 한국YWCA연합회는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의 집행위원회 단체로서 활동하게 되며,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기후위기에 온전히 대처하여 창조세계의 모든 생명이 '새 하늘과 새 땅'의 희망을 가질 있도록 기독교 기후학교, 정책자료 제작, 기후 행동, 연대활동 등의 여러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 집행위원회 참가 단체 및 교회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산울림마을교회, 샘터교회, 성서한국, 서울제일교회, 예수살기,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 출범선언문

지금 우리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류의 산업문명이 배출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는 지구의 평균기온을 급속히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극지방의 빙하는 녹아내리고, 대지는 메말라 황폐해지고 있으며, 거대한 숲이 불타오르고, 드넓은 바다마저 변화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온 힘을 다해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지구 생태계와 인간 사회는 돌아킬 수 없는 파국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여전히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기후위기에 대한 과학적 대응조차 정치적, 경제적인 판단에 좌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 교회 역시 기후위기로 인한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처한 위기를 알리는 파수꾼의 자리에 서있지 못하고, 혼란과 갈등 가운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에 기후위기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모색하여온 기독교 단체들과 교회들은 오늘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을 출범하며 한국 기독교 교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 나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먼저 우리는 기후위기와 현실 앞에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회개합니다. 기후위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총에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에 눈이 멀었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악한 세력들로부터 온전히 지키고 돌보지 못한 우리의 죄악에서 비롯된 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생명의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의 희망을 잃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다음의 행동을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1. 우리는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후위기에 관심을 갖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행동에 참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사건은 창조세계의 온전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기후위기라는 파국의 상황 앞에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창조세계의 일원이 되어 창조세계를 지키고 돌보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기후위기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이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맙시다. 용기를 내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모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행동에 나섭시다. 그리고 이 땅의 이웃들과 생명들에게 기후위기로부터 생명의 희망을 만들어 내갑시다. 이 일에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은 큰물을 길어 올리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2. 우리는 한국의 모든 교회와 기독교 단체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구를 조직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기후위기 대응은 그리스도인의 행동만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교회, 교단, 기독교 단체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한국의 교회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한 몸이 되어 고난을 극복해온 역사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모든 교회와 기독교 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기구를 조직하여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온전히 인식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비상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교회에서, 소속된 상회에서, 연합 기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모색하고 실행하는 위원회와 기구를 조직하여 주십시오. 이를 통해 교회가 기후위기의 시대에 다시 생명의 방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은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3. 우리는 국회와 정부가 정의, 평화, 생명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 법안을 만들고 시행토록 할 것입니다.

여전히 기후위기 대응정책에 있어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은 선언에 머물러 있을 뿐, 오히려 정치적인 이유로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정책들이 난무하는 지경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후위기 앞에서 국회와 정부의 더 이상의 무책임과 정략적 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은 미래세대에 책임을 떠넘기는 정책이 아닌 지금 당장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임시적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정의와 평화와 생명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 법안을 국회가 만드는 일에 지혜를 보탬 것입니다. 아울러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은 정부가 2050년에 앞서 실제적인 탄소제로 사회를 계획하고 만들어 나가도록,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모범이 되는 정부가 되도록 기독교 교회의 힘을 모을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는 작은 수가 모여 출범을 하게 되지만, 머지않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와 단체들이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이 나아가는 길에 동참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서 기후위기의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 나가며 수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궤방하는 불의와 분쟁의 세력과는 맞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모든 생명이 정의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기후위기의 두려움이 없는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2021년 3월 9일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



1970년,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모으기 위해 지구의날을 주창한 지 51년을 맞았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본격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책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뚜렷한 사회적 합의도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YWCA가 함께하는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이하 전국네트워크)는 22일 51번째 지구의날을 맞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바이소셜'을 주제로 지구의날 기념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전국네트워크를 비롯해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경실련,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푸른아시아가 공동 주관했다.

바이소셜(Buy Social)은 2012년 영국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시작한 캠페인으로, 시민들의 일상 속 소비를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적가치가 실현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철영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및 경실련 공동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4월 30일까지 이어지는 바이소셜 주간을 통해 파괴된 지구를 복구하자는 염원을 담아 기념식을 진행한다"며 "사회적경제와 시민사회, 정부

가 연대와 협력으로 지구회복을 위한 노력을 실천해 지역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사회적경제운동이 활성화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창립 99주년을 맞아 시대적·역사적 과제로, 탈핵생명운동을 탈핵기후생명운동으로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힌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축사에서 "지구는 지금 인간의 탐욕과 오만, 개발과 경제성 추구의 결과로 심각한 아픔을 겪고, 지구 위의 인간은 소외와 분리,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재난은 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여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미치고 있다"고 현재의 위기 상황을 진단했다. 또한 "바이소셜을 통해 우리 삶의 스타일 자체를 변혁하는 운동을 전개해 우리 사회의 경제 구조 변화를 이루고 나아가서는 탈핵·탈탄소 에너지전환 사회를 이루자"고 강조했다.

김인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역시 "오늘 이 자리는 사회적경제 그리고 시민환경단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선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바이소셜을 매개로 공동실천하는 활동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진흥원도 "지구의날과 바이소셜 주간을 맞아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바이소셜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 지구의 날 기념 선언문 Restore our Earth

2021년 4월 22일은 51번째 맞는 지구의 날이다.

지구의 날은 1970년 미국에서 전 지구적 환경위기 대응으로 시작되었지만 51년이 지난 지금,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기후위기에 봉착해 있다.

무한 경제성장과 대량소비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바다와 육지를 사막화하고, 대량의 환경난민을 양산했으며, 마침내 산업과 인간의 삶 전체를 총체적 위기로 몰아가 지구촌 국가와 세계 시장도 회복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생태계 파괴와 기후위기의 결과로 확산된 코로나 팬데믹은 심각한 사회경제의 고통과 함께 301만여 명의 사망이라는 비극을 연출했고, 인류의 생존과 기후 현안이 분리될 수 없음을 선명하게 확인시켜 주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대규모 산불, 미세먼지, 황사, 해수면 상승 등으로 기후위기가 가시화 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탈탄소 전환의 실패로 일어나는 산업의 붕괴, 시민과 노동자 그리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붕괴, 대량의 환경난민 발생 등으로 더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압박과 도전이 우리에게 해일처럼 밀려오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경제포럼이 발간한 2021년 지구위기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의 실패가 현재 지구촌 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위기를 강렬하게 주장하고 있다.

전 세계는 지금 탈탄소 전환으로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으며, 빠르게 기후위기 대응체제를 이행하고 있다. 미국, 중국, 유럽을 중심으로 탈탄소 압박은 가속화되고 있고, 그에 따른 온실가스감축 의무이행이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사회는 코로나 팬데믹, 경제 불황 그리고 기후위기의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 설상가상으로,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다. 석탄화력에 의존해온 한국경제와 사회가 제대로 대비하지 않는다면 산업붕괴로 인한 시민과 노동자 그리고 공동체의 붕괴는 불가피할 것이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압박과 함께 빠른 속도로 화석연료산업의 붕괴가 이어질 것이며, 비약적인 전환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문명의 전환은 혁명이면서 가혹한 고통과 희생을 전제로 한다. 한국정부의 뉴딜사업은 탈탄소 전환에 따른 고통과 해결비용을 산정하지 않고 있다. 1997년 IMF와 같이, 시민과 노동자에게 희생만을 요구한다면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정부는 시민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매년 평균 124억 달러(14조원)에 달하는 화석연료보조금과 지원금용을 탈탄소 전환에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그중 최소 40%는 피해노동자와 공동체 보호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던 석탄화력발전소 해외수출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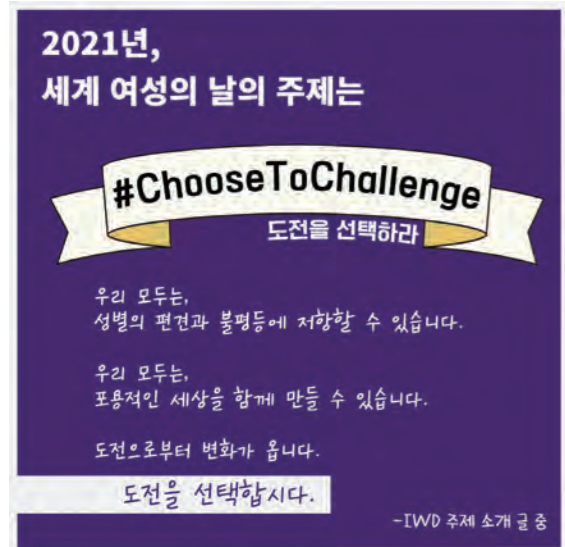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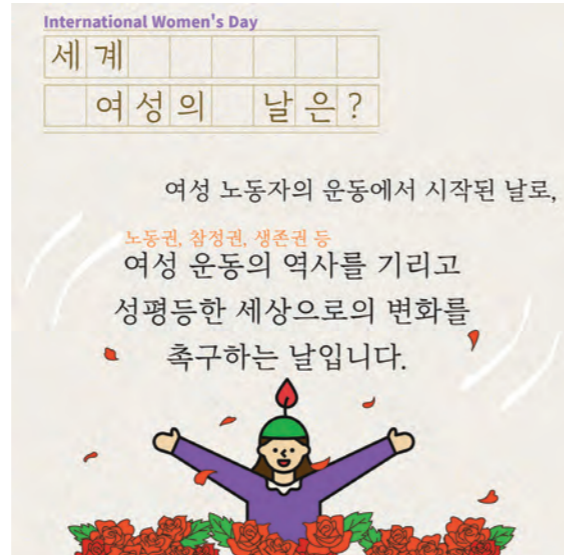
우리는 정부와 자본이 주도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탈탄소 전환으로 향하는 시민과 공동체의 길을 지지한다. 시민, 지역사회, 정부, 사회적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희망은 5년, 10년의 전환 로드맵을 만들고, 정부기업과 시민공동체가 협력하여 기민하고, 대담하고, 정의롭게 실천하는 데에 있다.

시민과 함께 기민하고! 대담하고! 정의롭게! 희망을 향한 투쟁을 선언한다.

2021년 4월 22일
지구의 날 기념식 참석자 일동

세계여성의날 YWCA 온라인캠페인



매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은 여성들의 노동권과 참정권을 비롯한 권리 신장을 위한 기념일로서 성평등한 세상으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날이다. 2021년, 세계여성의날 주제는 #ChooseToChallenge(도전을 선택하라)이다. 코로나 상황에서 집회와 모임이 제한적인 가운데 한국YWCA와 회원 YWCA는 올해 주제인 '도전을 선택하라'를 선언하는 인증

샷을 찍어 홈페이지와 각종 SNS에 게재하여 성차별과 불평등에 저항하며 함께 포용적인 세상을 만들 수 있음을 널리 알렸다. 세계여성의날 YWCA 온라인캠페인 참여 방법은 한 손을 들고 사진을 찍은 후 각종 소셜 미디어(SNS)에 #ChooseToChallenge 태그해서 올리면 된다.

4.27 판문점선언 3년 우리가 평화의 봄을 만들자



3년 전 2018년 4월 27일, 평화의 봄을 기억한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에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지만, 아직 새로운 시대는 오지 못했다.

한국YWCA연합회가 참여하는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에서는 판문점선언 3년을 앞둔 지금 2021년 4월, 2018년 어렵게 맺은 남북·북미 합의가 결실을 이루지 못하고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절실함으로 “각국 정부가 서로를 겨냥한 군사훈련과 군비 증강을 멈추고, 관계 개선과 신뢰 구축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4월 19일부터 4월 27일까지 9일간 집중행동을 벌이며 시민들의 한반도 종전에 대한 목소리를 모았다.

판문점선언 3년 한반도 종전 평화 집중행동(4.19~4.27)은 온라인 서명운동으로 전개되었는데,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요구하는 <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 서명을 거리와 온라인으로, 국회와 전국 지자체로 널리 알렸다.

한편, 4월 27일 판문점선언 3주년인 날을 맞아, 세종YWCA에서는 세종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시민들과 함께 조치원역 사거리에서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에 참여했다.



집중행동 함께하기 <https://endthekoreanwar.net/posts/56>

"우리가 평화의 봄을 만들자"

중전과 평화의 약속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행동, 잠시만 마음과 시간 내어 함께해주세요!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탈핵·생명·평화!

한국YWCA는 4월 19일 낮 12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의 공식 결정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고양YWCA·인천YWCA·천안YWCA·청주YWCA와 공동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탈핵생명기도와 기자회견 성명서에 이어, 방사능에 오염된 바다의 죽음을 추모하는 '바다장례식'을 통해 탈핵·생명·평화 세상을 향한 YWCA 회원들의 목소리를 전하였다.

고양, 인천, 천안, 청주 지역에서 등 11명의 실무활동가, 연합회 실행위원 등 총 14명의 회원이 함께 했다. 연합뉴스, KBS, 한겨레, 국민일보, 매일경제 등을 비롯해 많은 언론사에서 취재를 와, 참가자보다 기자가 훨씬 많은 기자회견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낭독한 연합회 오영란 실행

위원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생명과 건강을 도외시한 것으로 일본과 주변국은 물론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고, 세대를 거쳐 인류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범죄적 행위이다” 라고 규탄했다. 또한 이경애 고양YWCA 사무총장은 “일본이 접하고 있는 태평양 바다는 전 세계의 자원이다” 며 “자국의 얄은 이익만을 꾀하는 시도에서 탈피해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해양의 안전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님을 주장하고 ‘바다장례식’ 컨셉으로 진행되어 지나는 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고, 코로나 상황으로 제한된 기자회견 인원의 2배 이상의 기자와 취재진이 몰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기자회견-성명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생명과 건강을 도외시한 것으로 일본과 주변국은 물론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핵 사고의 연속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안해왔음에도, 값싸고 무모한 방법을 선택하여 국제 사회의 책임과 신뢰를 저버렸다. 이에 한국YWCA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올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10주기를 맞는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핵사고로 인한 방사능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폐해진 자연의 상처를 목도해왔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하여 순차적으로 방류하는 방식이라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도쿄 전력이 정화시설로 제시한 다핵종 제거 설비는 사용 이후에도 여전히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등을 기준치 이상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된다. 이러한 방사능 물질들은 해양 생태계에서 축적되고 결국 인간에게 그대로 전달되면서 엄청난 피폭량에 이르게 된다. 더군다나 후쿠시마 방사능의 피해는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더욱 치명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일본 국민과 주변국의 현재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며, 세대를 거쳐 인류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범죄적 행위이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 국제 사회 움직임에 부응하여, 지난 1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한국과 주변국 전문가도 참여하는 국제 조사단 파견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외 시민사회는 국제 온라인 서명을 통해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일본이 접하고 있는 태평양 바다는 전 세계의 자원이다. 따라서 자국의 얄은 이익만을 꾀하는 시도에서 탈피하여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해양의 안전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이에 한국YWCA는 일본 정부가 이 잘못된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우리는 국내의 시민들, 그리고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와의 공동 대응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2021. 4. 19
한국YWCA연합회

더 다양한 사람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수록 그 결정에 힘이 있다

| 이한빛

연합회 정책협력국 간사

2021년 3월 15일(월)부터 26일(금)까지 제65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65th Session of the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CSW65)가 열렸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전면 온라인 회의로 진행되었다. 한국YWCA를 대표하여 김은경(연합회 성평등 책임위원), 오영란(연합회 실행위원), 한미미(세계Y 부회장)와 청년대표로는 박민지(대전Y), 이민서(서울Y) 회원이, 연합회에서는 문윤희, 이수진, 이한빛 간사가 참여했다.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유엔 여성지위위원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산하의 기능 위원회로, 성차별 문제 해결과 남녀평등 증진을 목적으로 1946년에 설립되었다. 유엔 여성지위위원회는 여성 지위 향상과 관련된 현황 및 이행 방안 등을 검토하고 경제사회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며, 북경행동강령이 다방면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유엔 여성지위위원회는 유엔 회원국 중 45개국의 대표로 구성되며, 4년의 임기 동안 역할을 수행한다. 아시아에서는 11개국이 대표국 지위를 갖게 되는데, 한국은 1991년 유엔에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1994년에 처음으로 유엔여성지위위원회의 대표국 지위를 갖게 되었으며, 현재도 대표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회의는 매년 2주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진행되며, 선정된 주제에 따라 장관급회의, 부대 행사(Side Event), 병렬 행사(Parallel Event)가 진행된다.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는 대표국의 대표자 뿐 아니라, 해당 분야 전문가 및 지위를 얻은 NGO 단체들도 함께 참여한다. 모든 참석자들은 서로 역할은 다르지만 주제에 대해 같이 토의

하며 전략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하지만 작년부터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로 진행되는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회의도 진행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2020년에는 전체 회의 및 행사 규모를 축소하여 진행하였고, 올해는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되 온라인 상에서 진행하였다.

한국YWCA는 2016년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협의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이후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 매년 대표단을 구성하여 파견하고 있다.

제65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65)

제65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는 '성평등 및 여성과 소녀의 역량강화 달성을 위한, 폭력 철폐 뿐 아니라 공적 생활에서의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의사결정(Women's full and effective participation and decision-making in public life, as well as the elimination of violence, for achieving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all women and girls)'을 주제로, 여러 회의 및 행사가 진행되었다. 공식 회의는 유엔 홈페이지에서 생중계되었으며, 기타 행사들은 온라인 회의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었다.



전체 기간 동안 공식 회의에서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세분화되어 논의되었다.

처음 3일 동안은 '공적 생활에서의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의사결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후에는 '공적 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의 철폐'와 '여성의 역량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과의 연결'을 주제로 순서대로 세션이 진행되었다. 공식회의에서는 주로 각국의 대표들이 발표와 발언을 진행하였으며, 언권이 있는 NGO의 경우 사전에 신청을 통해 발언을 할 수 있었다.

공식회의가 진행되는 동시에 부대 행사(Side Event)와 병렬 행사(Parallel Event)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부대 행사는 주로 UN 기구나 각 국가 담당자가 포럼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병렬 행사는 NGO 단체가 진행하였다. 부대 행사와 병렬 행사는 비슷한 주제의 흐름으로 여러 기구 및 기관들이 같은 시간 대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여러 프로그램의 설명을 보고 미리 신청하여 줌 미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외에도 유엔 사무총장과의 타운 홀 미팅(town hall meeting) 등의 특별 프로그램도 진행되었다.

CSW65의 이야기

한국YWCA 대표단은 공식회의, 부대 행사, 병렬 행사, 타운 홀 미팅 등 여러 프로그램에 다양하게 참여하였는데, 총

2번의 회의를 통해 CSW65에서 다루지는 다양한 주제들과 중요한 이슈 및 관점을 나누었다. 아래의 내용은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전체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한 내용은, 코로나19가 여성들의 삶에 끼친 영향에 관한 것이었다. 팬데믹은 다양한 계층, 나이, 인종, 환경의 여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돌봄노동 및 가사노동의 증가 전세계의 수많은 여성들은 팬데믹으로 삼중고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육아 및 가사노동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도 주요하게 작용했다. 많은 나라에서 휴교가 이루어지면서 이는 여성의 돌봄노동 증가로 연결되었고, 돌봄노동 부담의 증가는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에게 특히 더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렵게 된 사례들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이로 인해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이 더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안전하지 않은 집, 그리고 온라인 공간 많은 국가에서 '집에서 안전하게 머무세요'라는 이야기를 할 때, 고려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피해자들이다. 채택 근무의 증가와 휴교, 사회적 거리두기 및 셋 다운 등으로 사회적 안전망이 사라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정폭력이 급증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밀접한 공간에서 머물기 때문에 신고도 수월하지 않다는 문제가 함께 제기되었고 관련하여 다양한 대책을 공유하였다.



많은 업무와 소통 등이 비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온라인 공간이 우리 삶에서 보다 더 폭넓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사이버 성폭력, 인신공격 등의 사이버 폭력도 함께 증가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폭력은 약자들을 향했다. 이에 따라 안전한 온라인 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관련하여 현실적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기후위기와 여성 기후위기의 상황에서 가장 먼저 소외되고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대상은 여성이다.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기후위기로 인한 변화들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 취업 등 사회활동의 폭이 좁아 적응의 기회가 적다. 기후위기의 영향은 여성의 실업률 증가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증가로도 이어진다. 팬데믹은 세계의 현실과 그것이 갖는 문제를 증폭하여 드러냈다. 위에 언급된, 또 여러 프로그램에서 코로나19와 함께 논의되었던 이슈들은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 이전에 사회 속에 있던 불평등과 젠더폭력이 재난의 상황에 더 폭발적으로 드러난 것뿐이었다. 이전에도 있던 불평등이 더 심한 불평등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같은 문제

가 주어졌다. “우리는 젠더폭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성의 정치참여와 청년리더십 여성의 정치참여는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서구에서는 이미 남녀동수를 이룬 반면, 비서구권에서는 전체적으로 여성 정치참여가 미미한 채 한해 동안 증가폭이 없었다. 현실에서 차이가 있다 보니 당연히 방향성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서구에서는 더 많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치 참여의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는 계속해서 여성 리더십을 길러내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여성의 정치참여 이슈와 함께 청년의 정치참여, 청년의 리더십 개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전세계적으로 사회는 다양한 세대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다양한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더 다양한 사람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수록 그 결정에 힘이 있고, 당사자성이 확보될수록 더 실효성 있는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여성 리더십을 포함하여 청년의 리더십 개발이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해 경험 및 기회의 부족과 기다림의 부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한 개인이 좋은 리더로 성장하기까지 키워주고 기다려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프로그램에



서 UN 여성기구의 의장은 이렇게 말했다. “청년들이 하는 실수는 괜찮다. 이런 실수는 보완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청년들이 실수하고 배울 수 있게 하자.”

CSW65의 새로운 가치, 교차성(Intersectionality)

이번 회의에서 많이 언급되기 시작한 단어는 ‘교차성’이다. 교차성은 같은 여성이어도 모든 여성은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인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젠더, 장애, 섹슈얼리티, 인종, 경제 등의 요인이 씨줄과 날줄처럼 교차되는 지점 중 개인이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소외와 차별의 경험이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여성 중에서도 유색인종, 더 가난한 사람, LGBTIQ+, 청년 및 아동이라면 더 많은 차별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차성을 중심으로 성매매 여성, LGBTIQ+, 전쟁 지역의 여성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었다.


기독교 NGO가 운영한 프로그램에서는 교회 안에서 이중적, 삼중적으로 불평등한 현실에 놓여있는 ‘여성 청년’에게 집중했다. 더이상 여성과 청년이 존재하지 않는 교회와 기독교 기관들의 현실을 분석하고 논의하며, 어떻게 여성, 청년들이 주체가 될 수 있을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국에서 뉴욕시간으로 온라인 회의하기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부터 아침 8시까지 회의에 참여하

다 보니, 생각보다 어려운 점이 있었다. 대학생인 대표들은 뉴욕에 직접 방문하여 참여했다면 학교의 배려를 받을 수 있었을텐데, 온라인에서 진행되다 보니 낮에는 학교 수업을 듣고 밤에는 회의를 듣는 등 밤낮없이 배움에 전념하는 일상을 살았다. 실무자들은 아침에 잠에 들고 오후에 업무를 진행하였는데, 각자 정해진 업무가 있다 보니 결국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을 하게 되었다. 다른 대표단들의 일상도 마찬가지였다. 대표단은 밤에는 단톡에서 모여 참여한 프로그램들을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2주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온라인으로의 참여는 많은 장점도 있었다. 무엇보다 화상회의 플랫폼의 대화창은 다양하고 많은 발화자들이 자신의 이야기와 생각을 나누는 소통의 통로가 되었다. 물리적 이동의 제약이 없어 한 프로그램이 끝난 후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동하는 것도 수월했고, 다양한 플랫폼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회의마다 개성 있는 운영 방식을 갖출 수 있었다. UN회의장의 현장 참여를 위해 뉴욕을 방문하기에 비용이 부담이 되었던 사람들도 부담 없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었다.

이제 CSW65에서 듣고 나누는 이야기들을 한국YWCA에서 어떻게 풀어갈 지의 숙제가 생겼다. 더 평등한 세상을 위해, 모든 폭력이 없어지는 그 날을 위해. 

악을 심판하기 위해 악이 필요하다?

| 오수경
청어람 ARMC 대표

‘막장 드라마’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통용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의 장르로 자리매김했고, 나름의 계보도 생겼고, 사회의 변화에 맞춰 확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막장 드라마 장르를 개척하고, 견인해왔다고 평가받는 대표적 작가 3인방의 작품들 - SBS <펜트하우스>(김순옥), TV조선 <결혼 작사 이혼 작곡>(Phoebe), KBS <오케이 광자매>(문영남) - 이 주말 드라마로 대거 편성되어 화제를 모았다. 한동안 뜸했던 막장 드라마가 다시 대중의 선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흐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막장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의 불길한 징후”라는 강명석 대중문화 평론가의 말을 적용한다면, 이런 흐름은 “한국 사회의 불길한 징후”와도 연결된다.

‘막장화’하는 드라마

막장 드라마들의 재부상과 더불어 주목하게 되는 흐름은 요즘 방영되고 있는 거의 모든 드라마의 ‘막장화’이다. 과거에는 ‘막장’ 담당이 주로 가부장제 혹은 불의한 구조, ‘빌런’ 등 악한 인물들로 제한되었다면, 요즘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들은 그 악에 대항하는 서사에서도 ‘막장성’이 발현되고 있다. tvN <빈센조>는 마피아보다 더한 불의한 권력 카르텔에 대항하기 위해 실제 마피아 출신 변호사 빈센조를 배치했다. JTBC <괴물>에는 연쇄 살인범이라는 괴물을 은폐한 괴물 같은 이들을 드러내기 위해 스스로 ‘괴물화’ 된 형사들이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간다. tvN <마우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찰서 순경이 사이코패스의 뇌를 이식받아 사이코

패스가 되어 사이코패스 범죄자를 처단한다.

공적시스템 붕괴된 사회 재현 ‘각자도살(各自圖殺)’의 세계관 정당화

이런 흐름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선 공적 시스템 붕괴다. 이 드라마들은 권력마저 사유화되어 공적 시스템이 붕괴한 세계를 재현한다. 공정하게 법을 수행해야 할 사법기관은 기업과 정치의 하수인이 되고, 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폭력과 살인을 도모한다. 이런 세계에서는 사적 복수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펜트하우스>의 모든 복수는 사적으로 자행되고, SBS <모범택시>는 아예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완성하는 ‘사적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권력을 사유화하고 남용하는 불의한 세계에서 ‘각자도생(各自圖生)’이라는 말도 순진하게 여겨질 정도로 ‘각자도살(各自圖殺)’의 세계관이 정당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펜트하우스>를 비롯한 정통(?) 막장 드라마뿐 아니라 <빈센조>같은 대중성이 높은 드라마나 <괴물>과 같은 ‘웰메이드’를 표방한 장르 드라마도 폭력적인 장면의 비율이 필요 이상으로 높다.

그래서 ‘권선징악’이라는 전통적 서사 구조는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다. 공적 시스템이 붕괴한 ‘마피아’와 같은 세계에서는 애초에 ‘선(善)’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빈센조>에서 약자의 편에서 정의를 추구하던 홍유찬 변호사나 대기업의 불법적 행위에 희생당한 이들의 유가족이 살해당



한 것처럼 선은 악에 의해 허망하게 죽어버리고, ‘선’으로는 더 이상 악을 응징할 수 없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게 된다. “악마가 악마를 몰아낸다. 제가 유일하게 외우는 이탈리아 속담입니다. 예전에 말했죠? 괴물이 괴물을 상대할 수 있다고. 근데 난 괴물이 못돼요. 누군가 진짜 괴물이 나타나서 법이고 지랄이고 이 나쁜 새끼들 그냥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어. 하지만 뭐 현실은 불가능한 거지. 빈센조 변호사님이 그 괴물이 될 순 없겠죠?”


정의롭고 선한 인물을 대표한 홍유찬 변호사의 말은 마치 “그 괴물이 되어서라도 나쁜 새끼들을 쓸어버려 달라”는 절박한 바람과도 같다. 그 말을 한 후 홍유찬 변호사는 바벨 그룹에 의해 살해당한다.

매운맛 정의에 환호하는 사회

악마를 몰아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심판의 권위다. <빈센조>의 악의 핵심축인 기업 이름이 ‘바벨 그룹’인 건 상징적이다.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신과 같은 절대적 권위를 가진 심판만이 바벨 그룹을 중심으로 한 ‘마피아’와 같은 절대적인 악을 응징할 수 있는 것이다. “빈센조 변호사님이 그 괴물이 될 순 없겠죠?”라는 홍유찬 변호사의 말에 화답이라도 하듯, 빈센조는 “이건 나한테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지켜온 룰에 대한 문제예요”라며 바벨 그룹에 희생당한 이들을 위한 피의 복수를 예고한

다. <모범택시> 역시 ‘악을 심판하기 위해 악이 필요하다’는 <빈센조>의 세계관과 궤를 같이 한다. ‘무지개 운수’와 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 ‘파랑새 재단’ 정성철 대표는 “악에게 지지 않고 나만의 방식으로 이길 거야”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카메라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 로마서 십이 장 이십일 절”이라고 적힌 사무실 벽의 낡은 액자를 비춘다. <빈센조>의 문제 해결 방식을 관통하는 말이 “내가 지켜온 룰”이었다면, <모범택시>에서는 “나만의 방식”이라는 단어가 핵심 키워드인 것이다. 우리는 이제 그런 드라마를 “사이다 서사” “매운맛 정의”라고 부른다.

<모범택시>는 이런 심판에 절대적 권위를 부여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직화한다. 공적 시스템이 개인을 보호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적 복수를 대행하는 업체인 ‘무지개 운수’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의뢰자가 게임 화면에 접속하여 의뢰 버튼을 누르면 업체는 주저함 없이 게임을 하듯 복수를 실행한다.

드라마는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 거울은 사법 농단, 아직 해결되지 않은 ‘세월호’ 참사, ‘LH 사태’로 대표되는 공정성의 붕괴처럼 선과 악의 경계도 사라지고, 공적 시스템의 개념도 무력화된 혼란스러운 사회를 비추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은 불가능하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이 더 효과적이고, ‘히어로’는 ‘안티 히어로’로 대체된다. 결국 정의의 기준이나 상식의 선을 넘어서는 ‘나의 룰’과 ‘나의 방식’이 더 강력하게 작동하며 안티 히어로가 심판의 당위와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가 점점 극단화하는 이유는 정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각자의 정의’가 어지럽게 초과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물론 ‘그렇게라도’ 해야 할 정도로 세상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은 유효하지만, 찜찜함도 공존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악을 심판하기 위해 악이 필요하다’는 서사 다음에는 어떤 서사가 놓일 수 있을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환영한다

40만 가사노동자들의 '오랜 염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지 10여 년 만에, 4월 29일 드디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1966년 파출부라는 이름으로 가사직종 개발과 직업훈련을 시작한 이래 55년 동안, 약 50만여 명의 돌봄직종 종사자 교육훈련 및 직업알선, 더 나아가 가사노동자의 법적 보호와 돌봄서비스의 공식화를 위해 노력해 온 한국YWCA는 제21대 국회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적극 환영한다.

우선적으로 가정 내 돌봄에 종사하는 40만여 명의 가사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반갑고 환영할 만하다. 가사노동자는 지난 60여 년 가까이 직업전선에서 노동자로서의 노동을 수행해왔으나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가사노동자들을 적용 제외한 이래 현재까지 무려 반세기가 지나도록 4대 보험과 직업훈련 등 법적 보호와 사회적 인정을 전혀 받지 못한 채 그림자노동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가사서비스가 개인대개인의 계약이 아니라 업체에 고용된 직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변화함으로써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종사자에게는 안정된 근로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당사자단체들이 요청해 온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 관련 내용이 누락된 것은 아쉽다. 공익적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 시장에서 과도한 이윤 추구를 방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향상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익적 제공기관의 선정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번 법 제정 과정에서 2010년부터 여러 국회의원들은 물론 고용노동부, 한국노총, 대리주부 등의 관련 기관, 단체 등이 모두 협력했다. 특히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무관심으로 일관할 동안 지속적으로 법안 상정을 위해 노력해 온 한국YWCA연합회와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등 당사자 단체는 지난 10여 년간 법조문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여 제안하고, 확인해 왔기에 일부 조항 삭제에 매우 아쉽다.

그럼에도 한국YWCA연합회와 산하 52개 지역YWCA, 1만 여 명의 돌봄회원들은 이번 법제정이 마중물로써 역할해 주길 기대하며, 이 자리를 빌어 노력해 주신 여러 단체, 기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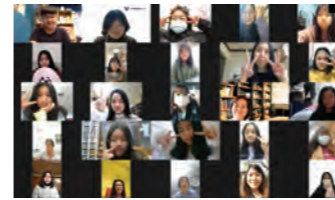
가사노동자들을 위한 법제화의 책임은 입법을 책임지는 국회의원들에게 있고, 국민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 법제정에 따르는 제반 문제들 또한 각 부처들이 협력하여 후속조치를 하루빨리 마련하길 기대한다.

2021년 4월 29일

한국YWCA연합회와 산하 52개 지역YWCA

강릉YWCA, 거제YWCA, 고양YWCA, 광명YWCA, 광양YWCA, 광주YWCA, 군산YWCA, 김해YWCA, 남양주YWCA, 남원YWCA, 논산YWCA, 대구YWCA, 대전YWCA, 동해YWCA, 마산YWCA, 목포YWCA, 부산YWCA, 부천YWCA, 사천YWCA, 서귀포YWCA, 서울YWCA, 서천YWCA, 성남YWCA, 세종YWCA, 속초YWCA, 수원YWCA, 순천YWCA, 안동YWCA, 안산YWCA, 안양YWCA, 양산YWCA, 여수YWCA, 울산YWCA, 원주YWCA, 의정부YWCA, 익산YWCA, 인천YWCA, 전주YWCA, 제주YWCA, 제천YWCA, 진주YWCA, 진해YWCA, 창원YWCA, 천안YWCA, 청주YWCA, 춘천YWCA, 충주YWCA, 파주YWCA, 통영YWCA, 평택YWCA, 포항YWCA, 하남YWCA

Y-틴 드림십 프로그램 한국-대만 첫 번째 만남



2021년 2월 27일(토) 오후 2시 Y-틴 드림십 프로그램 한국-대만 참가자의 첫 번째 만남이 온라인(ZOOM)에서 이루어졌다. 참가자들은 미리 자기소개 및 국가와 YWCA 소개 영상을 제작하여 공유했다. 참가 청소년들은 비대면 상황에서도 친밀한 국제 교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준비했다. 양국가 소개 이외에도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강의(그레타 툰베리 UN 영상)를 시청하고, 그룹별 활동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교류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특별히 타이페이YWCA 회장과 연합회 김은경 위원장 외 여러 위원들이 참관했고, 통역으로 왕가심, 페이페이 자원봉사자가 참여했다.

2021년 2월 27일(토) 오후 2시 Y-틴 드림십 프로그램 한국-대만 참가자의 첫 번째 만남이 온라인(ZOOM)에서 이루어졌다. 참가자들은 미리 자기소개 및 국가와 YWCA 소개 영상을 제작하여 공유했다. 참가 청소년들은 비대면 상황에서도 친밀한 국제 교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준비했다. 양국가 소개 이외에도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강의(그레타 툰베리 UN 영상)를 시청하고, 그룹별 활동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교류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특별히 타이페이YWCA 회장과 연합회 김은경 위원장 외 여러 위원들이 참관했고, 통역으로 왕가심, 페이페이 자원봉사자가 참여했다.

아시아기독교협의회 세계여성의날 웨비나



아시아기독교협의회(Christian Conference of Asia)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코로나19 이후 시기의 변혁적 여성 리더십'을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하였다. 이 행사에 성평등 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이한빛 간사가 패널로 참여하여, 코로나 시대 한국의 변혁적 여성 리더십 사례와 아시아 여성 청년 리더십 개발의 어려움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한빛 간사는 "여성 청년들에게 가능한 많은 기회와 리더십 교육을 제공하면서, 아시아 여성 청년 리더십의 성장을 기다리고 기뻐합니다"라며 발표를 마쳤다.

이 행사에 성평등 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이한빛 간사가 패널로 참여하여, 코로나 시대 한국의 변혁적 여성 리더십 사례와 아시아 여성 청년 리더십 개발의 어려움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한빛 간사는 "여성 청년들에게 가능한 많은 기회와 리더십 교육을 제공하면서, 아시아 여성 청년 리더십의 성장을 기다리고 기뻐합니다"라며 발표를 마쳤다.

가사노동자법 제정 연기 규탄 기자회견 3월 국회에서 법 처리 촉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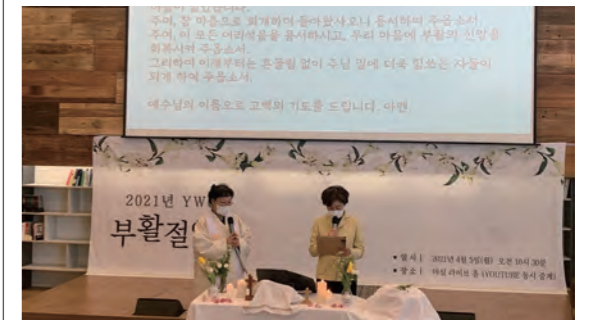


연합회는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3월 22일 오전 11시에 국회앞에서 가사노동자법 제정 연기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3월 23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될 예정이던 가사노동자법의 처리가 더뎠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밀실 담합으로 법 처리가 갑작스레 연기되자 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전국 40만 가사노동자는 지난 68년 동안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로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는 노동'으로 배제돼 왔다. 올해는 ILO 가사노동자협약이 채택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지만 2012년 우리 국회는 ILO 가사노동자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도 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이 제정되지 못해 지난 10년 동안 여성·시민단체는 가사노동자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연합회와 가사노동자협회 등 연대단체는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두 달에 걸친 농성을 벌이고 가사노동자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해 왔다.

정 연기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3월 23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될 예정이던 가사노동자법의 처리가 더뎠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밀실 담합으로 법 처리가 갑작스레 연기되자 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전국 40만 가사노동자는 지난 68년 동안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로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는 노동'으로 배제돼 왔다. 올해는 ILO 가사노동자협약이 채택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지만 2012년 우리 국회는 ILO 가사노동자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도 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이 제정되지 못해 지난 10년 동안 여성·시민단체는 가사노동자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연합회와 가사노동자협회 등 연대단체는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두 달에 걸친 농성을 벌이고 가사노동자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해 왔다.

정 연기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3월 23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될 예정이던 가사노동자법의 처리가 더뎠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밀실 담합으로 법 처리가 갑작스레 연기되자 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전국 40만 가사노동자는 지난 68년 동안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로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는 노동'으로 배제돼 왔다. 올해는 ILO 가사노동자협약이 채택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지만 2012년 우리 국회는 ILO 가사노동자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도 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이 제정되지 못해 지난 10년 동안 여성·시민단체는 가사노동자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연합회와 가사노동자협회 등 연대단체는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두 달에 걸친 농성을 벌이고 가사노동자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해 왔다.

2021년 YWCA 부활절 예배



새로운YWCA를 위한 부활절 예배가 4월 5일(월) 오전10시30분 마실 라이브홀과 유튜브생중계로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되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개인의 성찰과 회개의 시간을 가진 한국YWCA는 99주년의 부활절을 맞아 주님의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며, YWCA의 존재의 이유와 사명을 확인하고 새로운 YWCA를 위한 고백을 올려드렸다. 김명희 목사(실행위원)의 집례로 성찬식(키트만 제공)이 진행되었으며, 예배 순서 담당자, 실행위원 등 46명이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현장 예배에 참여하였고, 유튜브로는 회원YWCA를 포함하여 78명이 참여하였다.

새로운YWCA를 위한 부활절 예배가 4월 5일(월) 오전10시30분 마실 라이브홀과 유튜브생중계로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되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개인의 성찰과 회개의 시간을 가진 한국YWCA는 99주년의 부활절을 맞아 주님의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며, YWCA의 존재의 이유와 사명을 확인하고 새로운 YWCA를 위한 고백을 올려드렸다. 김명희 목사(실행위원)의 집례로 성찬식(키트만 제공)이 진행되었으며, 예배 순서 담당자, 실행위원 등 46명이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현장 예배에 참여하였고, 유튜브로는 회원YWCA를 포함하여 78명이 참여하였다.

배우고 체험하는 청소년 금융교실 씽크머니 협약식

배우고 체험하는 청소년 금융교실 씽크머니 협약식이 2021년 4월 7일(수)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개최되었다. 씽크머니는 지난 2006년부터 한국YWCA연합회와 한국씨티은행이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16



년차를 맞이하였다.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은 씨티재단의 후원을 받아 원영희 연합회 회장에게 지원금 약 2억 7천여만원(미화 25만달러)을 전달했다.

2021년에는 전국21개의 회원YWCA를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금융경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별히 올해에는 금융교육 대상자에만 머물렀던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이 만드는 지속 가능한 세상(Future Financial City)' 프로그램을 회원YWCA와 협력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본 프로그램은 금융교육 대상자에 머물렀던 참가학생들이 직접 다양한 금융 시스템들을 상상해보고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찾아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1년 제1차 YWCA 금융·경제 강사교육



2021 제1차 YWCA 금융·경제 강사교육이 3월 31일(수) 씽크머니, 수도권 지역 경제교육센터 소속 강사 약 1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되었다.

YWCA가 운영하는 금융경제교육과 의미, 체험형 금융교육 프로그램인 팝핀 실습,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이해, 사회적 경제 워크숍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올해에는 전국 24개 회원YWCA에서 금융경제교육(씽크머니, 수도권지역 경제교육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특별히 올해에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경제교육을 확대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2021 YWCA 신입사무총장 연수



2021 YWCA 신입사무총장 연수가 4월 14일(수) 한국YWCA연합회 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신입사무총장(강릉, 광주, 부산, 순천, 원주, 포항) 총 6명이 참석한 가운데 YWCA 사무총장 역할 및 관계 이해(유성희 상임이사), 한국YWCA 운영정책과 회원Y협력지원(구정혜 국장), 회원YWCA 재구조화와 지역운동(박동순 국장) 강의와 사무총장 리더십 워크숍(조은영 부회장)을 진행했다. 100년을 향한 YWCA 역사 속에서 "꿈꾸고, 함께하고, 행하는" YWCA 사무총장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을 나누었다.

YWCA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기자회견



한국YWCA는 4월 19일 낮 12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3일 일본 정부의 공식 결정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인천YWCA·고양YWCA·천안YWCA·청주YWCA와 공동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탈핵생명기도와 기자회견 성명서 낭독에 이어, 방사능에 오염된 바다의 죽음을 추모하는 '바다장례식'을 통해 탈핵 생명 평화 세상을 향한 YWCA 회원들의 목소리를 전하였다.

한국YWCA 창립 99주년 기념예배



한국YWCA 창립 99주년 기념예배가 4월 19일(월) 오전 10시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1부 예배에서는 원영희 회장의 인도로 99년의 역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최선화 실행위원의 기도와 올해 연합회와 함께 99주년을 맞는 광주YWCA와 서울YWCA의 특별찬양(영상)을 올려드렸다. 특별히 100주년을 넘어 새로운 역사에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YWCA 99년, Beyond 100년"이란 주제로 김형국 목사(나들목교회네트

워크지원센터)의 말씀을 나눴다. 2부 한국YWCA 99주년의 다짐에서는 유성희 상임이사의 사회로 '한국YWCA 99주년 회원선언' 과 '한국YWCA 99주년 탈핵기후생명 선언' 을 회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결단하며 지속할 것을 다짐하였다. '지역', '청년', '회원활동가', '탈핵기후생명'의 키워드를 가슴에 품고, 한국YWCA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며, 이 땅에 정의, 평화, 생명의 꽃을 피우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모든 회원들의 실천을 기대한다.

실시간 유튜브 참여자는 총 185명으로 모든 영상은 유튜브에서 확인 가능하다.

회원선언 낭독: 연합회 김은경 실행위원, 진주YWCA 김성이 회장, 연합회 이슬기 청년활동가

탈핵기후생명선언 낭독: 연합회 함희경 실행위원, 서울YWCA 이유림 회장, 대전YWCA 정혜원 회장, 연합회 이지윤 청년활동가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모금

(2021. 1. 1 ~ 2021. 3. 31)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개인	강류안, 김형, 김갑훈, 김미애, 김병숙, 김수연, 김애자, 김장미, 무지개모임(홍경화), 박연희, 박은실, 박진남, 박혜수, 배정미, 백정희, 소진경, 양서영, 오영란, 원영희, 유성희, 이숙현, 이영민, 이은영, 이주영, 이현주, 장선익, 장승혁, 정미경, 정영숙, 정이영, 정정옥, 정정희, 정진숙, 정진희, 조은영, 최수신나, 최은영, 최정애, 한완상, 함희경, 홍순옥, 홍현정, NEW(김우택, 한미미)	
교회	이화대학교교회, 함께하는교회	
회원YWCA	강릉Y, 거제Y, 고양Y, 광주Y, 군산Y, 김해Y, 논산Y, 대구Y, 동해Y, 부산Y, 부산강서구중합사회복지관, 사천Y, 서울Y, 세종Y, 수원Y, 순천Y, 안산Y, 안양Y, 울산Y, 의정부Y, 익산Y, 인천Y, 제주Y, 제천Y, 진주Y, 진해Y, 창원Y, 천안Y, 충주Y, 통영Y, 하남Y	
합계		31,272,420

YWCA 1922 장학금 모금현황

(2021. 1. 1 ~ 2021. 3. 31)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개인	구정혜, 김경천, 박동순, 이경희, 이숙현, 제혜사	780,000

북한어린이돕기 모금현황

(2021. 1. 1 ~ 2021. 3. 31)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CMS기부 (2021. 1. 1 ~ 2021. 3. 31)	강승아, 강현중, 고세영, 곽지영, 구정혜, 국윤택, 권경미, 김기현, 김경희, 김근혜, 김기동, 김명희, 김미경, 김병호, 김상은, 김수연, 김수진, 김애린, 김영자, 김영현, 김은경, 김은영, 김정린, 김주영, 김주현, 김태연, 김혜경, 나척더르즈, 들람수렌, 남희숙, 명진숙, 문관희, 문미란, 문상순, 문윤희, 문인수, 민선영, 박미선, 박보람, 박성민, 박영순, 박용옥, 박은실, 박지영, 박진화, 박효정, 배유미, 배인기, 배정미, 배창빈, 배한솔, 배한울, 백혜진, 송록희, 신명자, 신인숙, 심은옥, 안은화, 안정희, 양영심, 엄세현, 엄효정, 오시창, 오영란, 원영희, 유도희, 유 빈, 유성희, 유 수, 윤명선, 윤수정, 윤혜식, 이남희, 이명혜, 이민정, 이순덕, 이영미, 이영숙, 이윤숙,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종임, 이주영, 이지윤, 이찬형, 이찬진, 이혜련, 이희숙, 이희정, 임진영, 임향옥, 장세영, 전배자, 전정미, 정경란, 정동신, 정서연, 정지유, 조성애, 조영미, 조은영, 진인식, 차경애, 천유란, 최수신나, 최지영, 최현선, 하은경, 한영수, 한혜경, 홍기자, 홍현정	3,125,000
회원YWCA	고양YWCA, 광주YWCA, 부천YWCA, 서천YWCA, 양산YWCA, 제천YWCA, 창원YWCA, 포항YWCA	843,980
교회	황간임마누엘교회, 한양대여성교회	390,000
개인	박동순, 익명	130,000
기관 및 단체	전주Y 어린이집	351,550
합계		4,840,530

경인·강원권역

강릉YWCA

이신애 부장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경력자 교육



강릉YWCA 고령자인재은행은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으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경력자교육을 3월 31일부터(수) 4월 9일 (금)까지 8일간 55시간 진행했다.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나 500시간 돌봄종사 경력을 가진 교육생 대상이다. 산모와 신생아 돌봄 과정에서 필요한 기본 지식과 실행 방법을 익히고 정부바우처 행정처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각종 기록, 보고 및 서비스 비용결제처리 방법을 배우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로서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공감과 배려의 마음을 기르는 시간이었다.

동해YWCA

정미숙 팀장

제16대·17대 회장 이·취임식 개최



동해YWCA는 16대·17대 회장 이·취임식을 3월18일 오후2시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되었으며,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자체 행사로 진행되었다.

이날 이·취임식에서는 박경옥 회장이 이임하고, 홍성주 이사가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취임한 홍성주 회장은 “지역사회 봉사 정신의 역량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성장하도록 앞장 서겠다”고 약속하였다.

인천YWCA

서순아 팀장

부활계란 나눔행사



인천YWCA는 2021년 부활절을 맞아, 지난 4월 4일에 인천중앙공원 부활계란나눔행사를 진행하였다. 인천 중앙공원에서 시민들께 부활란과 환경보호 실천을 위한 손수건 나눔을 통해, 부활의 의미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전할 수 있었으며 봄나들이 나온 시민들께서 YWCA의 목적과 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보람된 부활절 행사가 되었다.

서울YWCA

성지희 팀장

이사·위원연구모임 온라인 특강



서울YWCA는 3월 25일(목) 2021이사·위원연구모임 특강을 온라인 줌으로 열었다. ‘위드 코로나 시대 기독교성,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제로 장윤재 목사(이화여대 교목, 기독교학과 교수)와 함께했다. 장 목사는 지금의 상황은 환경과 생태의 위기가 아닌 ‘신앙’의 위기라며 그리스도인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는 사람만이 아닌 온 우주 만물이 속해있으며 ‘생태적 거리 두기’를 통한 배려와 존중을 강조했다. 이어서 기독교성단체로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희망을 전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권역

고양YWCA

남궁해경 국장

‘내가 바라는 성평등한 세상은?’ 인증샷 릴레이

고양YWCA는 3·8 세계여성의 날 113주년을 기념하여 ‘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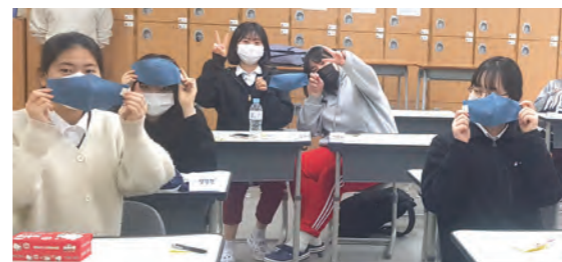


코로나 시대의 심화된 불평등을 평등으로 라는 주제로 고양시 113인 평등선언을 온라인 인증샷 릴레이를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 ‘내가 바라는 성평등한 세상은?’ 이라고 적힌 피켓에 각자가 정의하는 생각을 담아 인증샷을 찍은 후 개인 및 기관 SNS에 올리는 형태로 참여하였다. 고양시민 113명이 참여한 평등선언에는 고양시 시민단체 21곳과 국회의원, 시장 및 시도 의원들도 참여하여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였다.

수원YWCA

강은진 간사

‘코로나와 기후위기’ Y-틴 면마스크 만들기



수원YWCA는 2021년 Y-틴 활동 주제를 기후위기를 정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4월 9일(금) 수원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와 기후위기’라는 내용의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면마스크를 학생들과 직접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거리두기와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YWCA 중점운동을 실천하는 청소년 회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활동할 예정이다.

안산YWCA

홍지인 팀장

회원증모발대식

안산YWCA는 4월 6일(화) 오전10시,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강당에서 회원증모발대식을 진행했다. 수원YWCA의 이명순 이사의 강연으로 YWCA 회원증모운동의 목적과 개인 및 조직



차원에서의 증모 계획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회원증모발대식을 시작으로 5월 24일까지 회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역 내에서 전개할 계획이다.

안양YWCA

신재화 간사

Y-Teen 동아리



안양YWCA 청소년 동아리 안양Y-TEEN이 3월 13일 면접을 통해 2021년 새로운 멤버 모집을 완료하고 3월 27일 오리엔테이션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코로나19가 아직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활동에 대한 Y-틴의 열정은 막을 수 없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하고 있다. 안양Y-틴은 2021년 동안 환경보호 전반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있으며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각종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정부YWCA

김홍례 부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



의정부YWCA는 2.17(수)부터 26일(금) 까지 의정부, 양주, 동두

천, 포천, 연천지역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1차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교육을 진행하였다. 코로나상황을 감안하여 선착순 2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였고 신규자반과 자격증 소지자반으로 나누어 교육을 진행하였다. 의정부YWCA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으로 재지정 받아 운영 중이다.

하남YWCA 김상미 간사

지구를 살리는 나무심기



하남YWCA에서는 4월 3일(금)에 미사강변공원에서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 준비위 회원들의 모임으로 하남시 관내 40여 단체들과 함께 '지구를 살리는 나무심기'에 동참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잦은 폭염, 폭설, 태풍 등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해 기후위기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가운데 회원들이 모여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는 생각으로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하여 미래 세대에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보존 등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시민 스스로가 추진하는 자발적인 실천행동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도시로 가고자 하는 하남시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충청권역

대전YWCA 안소진 팀장

탈핵퍼포먼스

대전YWCA는 3월 11일(목) 오후3시11분 후쿠시마 핵사고 10주기를 맞이하여 대전YWCA회관 앞에서 탈핵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대전시민들에게 “대전이 노잰도시라고? 대전은 핵이 있는 무서운 도시”라는 주제로 탈핵퍼포먼스를 통해 핵의 위험성을 알리고, 탈핵세상을 향한 길을 위해 함께 행동해 나가야 한다고 외쳤다. 또한 3월 8일부터 3월 14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핵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SNS이벤트 ‘핵사고’ 3행시 짓



기, 릴레이 온라인캠페인도 함께 진행하였다. 대전YWCA는 다양한 방법의 캠페인과 퍼포먼스를 통해 우리 곳곳에 미치는 핵문제를 깨닫고, 핵발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다음세대에게 물려주기 부끄럽지 않은 사회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세종YWCA 양유정 간사

치매예방관리사 양성과정



세종YWCA는 3월22(월)일부터 4월2일(금)까지 세종YWCA 교육장에서 치매예방관리사 양성과정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21명 모두 관리사 과정을 수료했다. 수료생들은 실습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하며 요양보호사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에서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천YWCA 김미경 팀장

어르신 돌봄 활동



제천YWCA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수행기관인 충북지역복지개발회와 함께 지역 내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사회복지 자원과의 연계 협약을 맺고 독거노인 세대, 노인부부 세대 15가구를 대상으로 월 1회 돌봄 봉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부식 및 가공품, 생활용품

등을 전달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 및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제천YWCA는 지역사회에 돌봄사각지대 어르신 및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노인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더 나아가 우리 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한다.

청주YWCA 한기연 간사

제로웨이스트 상점



청주YWCA에서는 4월 13일 일회용품 줄이기 생활 속 실천을 이루기 위한 제로 웨이스트상점을 열었다. 생활 속 쓰레기를 줄이고 재사용을 통한 환경 중심의 착한 소비를 추구하기 위해 청주YWCA에 제로웨이스트 상점을 마련하고 이날 오픈식을 가졌다. 이 상점은 사용할 때마다 배출되는 플라스틱 용기와 새로운 플라스틱이 배출되는 것을 줄이고자 소비자들이 집에 있는 용기를 가지고 와서 원하는 만큼의 세제를 소분해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플라스틱용품이 아닌, 생분해가 가능하거나 천연소재의 제품들로 대나무 칫솔, 천연 수세미, 천연세제, 주방비누, 샴푸바 등의 친환경 제품들과 수질정화의 일원인 EM(유용한 미생물) 제품들을 판매한다.

충주YWCA 이예림 간사

올리매장내 제로웨이스트샵 운영



충주YWCA는 불필요한 포장재를 줄이고, 각 가정마다 잠자고 있는 장바구니, 종이가방, 플라스틱 용기들을 재사용하는 환경 중심의 착한 소비를 추구하는 생

명살리터 올리매장내 제로웨이스트샵을 운영한다. 플라스틱 용품이 아닌 생분해가 가능하거나 천연소재의 제품들로 대나무 칫솔, 천연수세미, 천연세제 소프트, 대나무섬유 화장솜, 옥수수 치실 등의 친환경 제품들과 수질정화의 일원인 EM(유용한 미생물)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또한 사용할 때마다 배출

되는 플라스틱 용기를 줄이고자 세제 리필샵과 우유팩, 종이팩, 폐건전지, 종이가방, 장바구니, 플라스틱 또는 유리용기를 수거하는 회수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우유팩과 폐건전지는 새 건전지와 교체해 주며, 장바구니, 종이가방, 용기들을 가지고 오면 샴푸바를 선물로 제공한다.

충주YWCA 엄정옥 회장은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들의 생활 속 작은 실천들이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실천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상권역

거제YWCA 박숙혜 간사

미안마 시민을 위한 1달러 모금캠페인



미안마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지하는 ‘미안마 시민을 위한 1달러 모금캠페인’을 4월 2일부터 4월 9일까지 거제시 노동복지회관에서 진행했다. 모금액은 4월 12일 한국YWCA에 전달했다. 모금액은 미안마 YWCA를 통해 어린이들과 여성들을 포함한 피해 시민들의 구호 약품과 생필품 지원, 피해자 가족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2021년 2월 1일 미안마 군부가 쿠데타를 감행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군부의 폭정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안마에서는 지금도 어린이들을 포함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고 있으며, 민주화를 외치는 시민들에 대한 구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을 현지로부터 전해 듣고 있다. 하루 속히 미안마에 무력과 폭력이 그치고 평화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미안마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모금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회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김해YWCA 배정숙 부장

30주년 회원DAY 해반천 청소봉사

김해YWCA는 올해 3월 그간 닫혀있던 회관을 개관하면서



2021년 첫 봉사로 분성산 등산로를 청소 봉사활동을 펼쳤다. 등산할 때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가 새봄을 맞이하는 산의 경관을 해치고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기에 매주 토요일과 주일 새벽 5시 30분부터 오전 8시까지 등산로를 매주 청소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실의 활동으로 김해YWCA를 알리고 활동에 동참을 이끌어 내고자, 회원들이 주축으로 봉사 동아리를 구성(이후 만들레동아리), 해반천 청소와 성인지 사업 모니터링 등에 동참 해왔다. 또한 3월 22일 세계물의날 기념으로 Y-틴들이 주축이 되어 해반천 청소도 진행하였는데 오전 가운데서도 청소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여 지나가는 시민들의 격려가 이어졌다.

대구YWCA 김보현 간사

'회원증모는 숙제가 아닌 축제이다!'



대구YWCA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의 후원회원 증모운동을 펼친다. 사단법인 대구YWCA로 시작하는 첫 증모운동의 기간 가운데 대구YWCA 이사, 위원, 실무자가 모여 4월 한달 간 회원증모 집중기도회를 함께 한다. 대구YWCA를 구성하고 있는 10개의 위원회에서 위원장님들이 릴레이 기도문을 작성하여 하나님나라 운동을 위해 함께 힘쓰며 매주 공유하고 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100주년을 향해 가는 대구YWCA가 더 많은 시민들과 회원들과 함께 YWCA 운동에 동참할 수 있길 바란다.

부산YWCA 최수정 간사

2021 임원·위원장·실무자협의회

부산YWCA는 3월 23일(화) 오전10시30분 일한실에서 임원,



위원장, 실무자가 함께협의회를 가졌다. 김문진 회장의 인사발췌와 홍순옥 중경회장의 '부산YWCA 위원장의 역할'에 대한 강의와 2021 한국YWCA 중점사업에 대해 김정환 사무총장의 설명이 있었다. 이어서 '부산YWCA 맛있는 피자 만들어요' 제목으로 위원회별 워크숍을 하였다. 부산YWCA라는 피자 도우에 각 위원회의 역할, 활동 등을 사용할 재료로 구성하고 추가하고 싶은 운동을 토핑으로 얹혀 보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또한 매월 실천할 수 있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을 결의했다.

사천YWCA 송주은 간사

남강댐 대응 범시민대책위 참가단체 대표자 간담회



4월 8일 오후 2시 사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사천YWCA주관으로 남강댐 대응 범시민대책위 참가단체 대표자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50년간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치수중대사업이란 명목으로 두 배의 방류량을 늘린다는 것을 대응하고자 사천시민이 모인 것이다. 남강댐문제 대응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앞으로의 남강댐방류량 중대사업은 결국 사천시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평등한 사업임을 널리 홍보하고 사천 시민의 결집을 이끌어 남강댐방류를 막아낼 것을 결의하였다.

양산YWCA 김유경 간사

이사회 주관 목적사업 기금 마련

양산YWCA는 3월 6일(토)과 4월 3일(토) 양일간 양산YWCA 이사회 주관으로 토스트 만들기과 햄버거 만들기를 진행하였



다. 토스트 만들기과 햄버거 만들기는 올해년도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마련 사업의 일환으로 무엇보다 중경회장단과 이사회, 실무활동가들이 한마음으로 섬김과 나눔 활동을 실천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코로나19의 철저한 방역수칙 아래 재료 준비 및 손질을 하며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앞으로 양산YWCA가 지역을 돌보는 일에 대들보 같은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울산YWCA 권한별 간사

중견실무자들의 역량강화 교육



울산YWCA의 중견실무자 교육이 3월 9일 화요일, 2층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된 본 교육은 울산YWCA를 비롯한 부속시설 4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성회관, 성매매피해상담소, 씨밀레)의 팀장급 이상 중견실무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기획되었다. 1부 교육으로 한현정 사무총장이 '중견(中堅)이십니까?'라는 제목으로 중견실무자로서의 역할과 가져야할 자세 등에 대해 교육하였으며, 각 실무자들의 고충을 듣는 시간으로 꾸러졌다. 2부 교육으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광식 팀장의 '우리 하나 강의가 있었다. 레크리에이션을 더한 해당 교육은 실무자간의 협동심을 이끌어내고, 중견실무자로서의 유대감을 나누고 관계를 강화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진주YWCA 김태진 팀장

진주여성정치수다방 열어

진주YWCA는 3월 8일(월) '진주를 성평등으로 디자인 하자'란 주제로 3.8세계여성의날 진주기념대회를 진행하였다. 오전 11



시 진주시청 광장에서 3·8 선언문 낭독과 기자회견을 통하여 113회 세계여성의날을 알렸으며 오후 7시부터는 진주YWCA에서 유튜브 실시간 중계방송으로 '진주여성정치수다방'을 열어 지역의 여성들과 함께 했다. "한국을 떠나면 우리 모두는 이방인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돌봄노동", "성평등한 농촌 우리 손으로"란 주제 발표와 이후 온라인 실시간 참여 60여 명의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진해YWCA 이재경 사무총장

진해Y-teen 인준식



진해YWCA는 4월 3일(토) 회의실에서 신입 청소년 회원 15명과 임직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청소년 동아리 인준식을 가졌다. 올해 중점운동으로 청소년 스스로 정한 주제 '기후 위기 비상행동'을 위해 미리 준비한 박스에 각자의 구호를 정해 만들고, 1년 동안 Y-teen 활동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정의로운 행동의 전파를 다짐하였다.

창원YWCA 김하영 간사

대학·청소년 동아리 연합 인준식

창원YWCA는 4월 3일(토), 대학·청소년 동아리 연합인준식을 진행하였다. 총 29명의 동아리 회원들과 창원YWCA 회장을 비롯한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참석하여 인준식을 격려해 주었다. 인준식은 여는 예배로 시작하여 각 동아리 소개 및 사람책방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주요 프로그램이었던 사람책방은 YWCA 4대 중점운동인 평화·통일, 성평등, 탈핵·기후생명, 청소년 운동을 비롯하여 YWCA 소개까지 5개의 책방으로 운영



되었으며, 각 책방에서는 참여하는 동아리 회원들도 스스로의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 참여도가 높았다. 창원YWCA는 대학·청년들이 함께하는 Y-디어, 10대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센터Y-틴, 중앙여고 학교 Y-틴 그리고 카디리학교 4개의 동아리로 구성되어 있다.

통영YWCA 변은실 팀장
코로나블루 극복 프로그램



통영YWCA는 통영시 양성평등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 및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블루 극복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다. 불안 검사를 통한 심리 상담 및 공예 활동을 통해 코로나 블루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도록 지원하고 있다. 통영YWCA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통영 시민들이 긍정적 정서를 키워 코로나블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포항YWCA 김민경 간사
이사·위원·강사·직원 훈련 및 회원증모 발대식

4월 7일(수) 포항YWCA 강당에서 이사·위원·강사·직원 정체성 훈련 및 회원증모 발대식을 진행하였다. 백성미 회장의 인도로 드린 1부 예배는 전점속 회원부위원장의 기도, 포항YWCA 직원들의 특송, 공동기도문으로 진행하였으며, 2부 특강으로 부산YWCA 하선규 중경회장의 '광야의 복과



하나님나라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YWCA지도자들의 역할 및 정체성 훈련과 회원증모에 대한 의미에 대해 강의를 하였다. 3부 회원증모 발대식에서는 전점속 회원부위원장의 2021년 위원회 소개 및 회원증모 목표 보고, 회원카드 수여 등의 순서에 이어 광고 및 친교의 시간으로 마쳤다.

전라·제주권역
광주YWCA 서정현 부장



미안마의 군사독재에 맞선 시민들의 민주화 시위가 2월부터 두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YWCA는 군부독재정권을 규탄하는 미안마 시민들의 민주주의 시위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캠페인과 모금활동을 회관 1층 로비에서 진행하고 있다. 또한 1980년 광주를 닮은 미안마를 지원하기 위해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미안마 광주연대)가 결성되어 지지, 지원, 연대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모금된 금액은 한국YWCA연합회와 미안마광주연대에 전달하였다. 앞으로도 캠페인과 모금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군산YWCA 황수미 간사
제2차 탈핵캠페인 진행

군산YWCA는 3월 26일(금) 오후2시~3시까지 군산이성당 앞



광장에서 제 2차 탈핵캠페인을 진행했다. 군산YWCA는 올해 탈핵생명운동의 일환으로 총 8회 탈핵캠페인을 계획하고,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군산 지역에서 가장 많은 유동 인구나 여행객들이 모이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 군산Y 회원과 실무자들이 함께 새롭게 제작한 피켓을 활용해 탈핵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탈핵캠페인 시간과 장소를 변경하면서 이전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YWCA 탈핵생명운동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남원YWCA 박희정 간사
세계여성의날 남원YWCA캠페인



남원YWCA에서 3월 8일(월) 오후 2시에 113주년 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여, 시가 행렬을 하였다. 1908년 3월 8일,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를 요구한 역사가 시작된 날로 매해 세계여성의날로 공식 지정되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남원 시민들에게 여성의날 의미를 알리고, 여성으로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남원Y 회장단, 이사님들, 회원, 직원, 유관기관에서 함께 동참하여 남원시 오거리·남원시청·선원사 시내를 한 바퀴 돌며 시민들에게 캠페인 활동을 하였다.

목포YWCA 박혜림 부장
창립 74주년 기념 예배와 4.16 세월호 참사 7주기 추모

목포YWCA는 4월 16일(금) 오후 5시 본부 강당에서 코로나19로 이사, 실무자가 최소한으로 참석한 가운데 창립 74주년 기념



예배와 4.16 세월호 참사 7주기 추모를 함께 드렸다. 이경애 이사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이라는 말씀을 통해 중합선물세트처럼 74년간 목포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운동과 활동들을 펼치며 기독교여성시민운동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감사드렸다. 또한 지금까지 목포YWCA를 위해 헌신해 주신 중경회장님들과 직전회장님께 현 임원단들이 감사의 화분을 드리는 시간도 가졌다.

서귀포YWCA 김지희 간사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개성



서귀포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단장 고맹수)은 3월 30일 서귀포 시내 일대와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환경개선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개학 기간동안 등교 수업에 따른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등에 대한 접촉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며 청소년 보호의식을 확산하고 깨끗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 홍보, 청소년유해물건 레이저포인터·유해물질 컬러풍선 판매 여부 점검 활동을 전개했다. 학교 주변 문구점과 편의점을 중심으로 계도활동과 청소년보호법 홍보 리플릿 및 코로나 예방을 위한 마스크 배부 활동을 전개했다.

순천YWCA 신정옥 간사
사단법인 순천YWCA 신입위원 교육



순천YWCA는 4월 1일(목)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2021년 신입위원 교육을 실시했다. 순천YWCA 소개, 목적문을 통해 본 YWCA 이해, 역사를 통해서 본 YWCA 운동 이해와 최영자 증경회장이 전하는 ‘나에게 YWCA란?’ 등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신입위원 교육 후에는 위원 서약서를 작성하고 YWCA의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향한 발걸음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여수YWCA 김예랑 간사

세월호 참사 7주기 추모행사



여수YWCA는 4.16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4월 10일 토요일 오전11시 이순신광장에서 추모행사를 마련했다. 광장 중앙에 세월호 추모 메시지를 적어서 걸 수 있는 추모나무를 설치하고, 세월호 사진전시회를 열었다. 또한, 추모부스에서는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세월호 배지를 비롯한 팔찌·스티커와 같은 기억물품을 가져갈 수 있도록 비치해두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운영되었다.

익산YWCA 임다영 간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발대식

익산YWCA는 4월 8일(목) 2021년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발




대식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사회복지관, 대학생, 보험사, 학원, 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감시단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발대식은 고혜정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대표 단원에게 감시단증 수여 및 청소년 열매나눔공동체 최광동 센터장의 감시활동 사례소개와 단원교육으로 진행됐다. 고혜정 회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한 명 한 명의 작은 활동이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행동하는 어른으로서 감시단원의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YWCA 박슬기 간사

산모 아이돌보미 양성과정



제주YWCA 고령자인재은행은 4월 6일(화)부터 23일(금)까지 ‘2021년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산모·아이돌보미 양성과정’을 진행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제주YWCA 고령자인재은행이 주관하는 ‘산모·아이돌보미양성과정’은 50세 이상 장년층 22명이 참여해 산모·아이돌보미로서의 기본 소양 및 가치관 교육 등의 취업의욕 고취 프로그램과 산모·아이돌보미 직무능력 향상 훈련 및 일자리 개척 동아리 활동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전 세계가 기후 위기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하나님의 지구에서 자행된 인간 중심의 탐욕과 무한경쟁의 결과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자 질서이고, 모든 피조물은 각자의 생의 자리에서 가치와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개발과 성장의 논리는 여성과 미래세대, 사회 경제적 약자, 자연과 다른 피조물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빼앗았고, 기후 불평등이라는 참혹한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태 정의를 실현하라는 예언자적 소명에 응답함으로써,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여성

기후 변화를 멈추는
변혁의 주체입니다.

청소년

우리는 다르게 살기를
선택합니다.

지역회원들

우리 지역을
재생가능 에너지 전환과
자립 가능한 지역으로 바꿉니다.

한국YWCA 창립 99주년을 맞는 우리는 탈핵 에너지 전환과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이 시대 절체절명의 과제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임을 고백하며, 100년을 이어 지속적인 우리의 실천과 행동을 통해 새로운 탈핵기후생명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단합니다.

- 하나, 우리는 탄소중립 사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탄소 금식 행동을 실천합니다.
- 하나, 우리는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과 정책 제안 활동을 전개합니다.
- 하나, 우리는 기업의 책임 있는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하고 탈석탄·녹색금융을 지지합니다.
- 하나, 우리는 탈핵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합니다.
- 하나,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행동에 함께 합니다.

2021년 4월 19일
한국YWCA연합회